

미래사회

제3권 제1호 / 2012.11.

자대배치 단계에서의

군부적용 병사의 유형 및 관리 상황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이정원 · 김윤나 / 1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개념구조 권금주 · 임연옥 / 31

도시빈민은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지역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이은주 / 51

투자심리 사이버교육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실증적 영향 연구 서영수 / 77



자대배치 단계에서의 군부적응 병사의 유형 및 관리 상황에 관한 내러티브¹⁾ 연구

이 정 원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김 윤 나²⁾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자대 단계에서 군 복무에 부적응하고 있는 병사를 대상으로 군부적응 유형을 밝혀내고 이러한 군 부적응 유형을 어떻게 식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본 연구이다. 2012년 6월~7월 육군(병사 31명)에서, 해병대(병사 5명, 간부 5명)와 해군(병사 5명, 간부 3명), 공군(병사 3명)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의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52명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내러티브 분석방법에 입각하여 군복무 부적응을 만드는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상호작용에 대한 양상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 지휘관의 부적응자 관리와 상담 역량 강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전문성 강화, 군, 관, 민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연계, 각 단계별 각각의 상황 원인 및 대안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등이 제안되었다.

주요어 : 군부적응, 자대단계, 비전 및 그린캠프, 표적집단면접, 내러티브 분석

1) 본 연구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의 일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2) 교신저자 : 김윤나,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3-15,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imyoonna@hanmail.net

I. 서론

군에 들어오는 병사들은 인생주기에서 보면 청년기에 속하는 집단이다. 청년기란 신체적, 정서적, 지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자아를 자각하고 외적 현실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사회 성원으로 자기를 완성해 가는 시기이다(육군사관학교, 1980).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기존 질서에 대해 불만을 가질 청년시기에 엄격한 규율, 명령, 긴장 속에서 획일적인 단체행동을 요구하는 군대 생활은 병사들의 심리적인 갈등과 부적응을 겪기 쉬운 환경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매년 입대하는 24만 명 가운데 인성검사(KMPI) 결과 10% 안팎이 보호·관심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국정감사 제출자료, 2005)에 따르면, 군 입영대상자의 45%가 인격장애 요소를 보유하고 있고, 군복무 부적응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500명의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한겨레21, 566(7) 2005)에 의하면, 전역자의 16.4%가 군 인권의 진전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인권을 지킬 수 없는 문제병사들의 증가’, ‘군 문화의 근본 속성으로 인해 그렇다(50.8%)’ 고 응답하였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현역복무부적합자는 935명으로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자’, ‘군 생활 적응이 심히 곤란한자’, ‘기타 사고 우려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2011. 7. 4. 발생한 해병대 총기사망사건이나 육군 00사단 외박 중 이병 자살사건 등을 볼 때 군에서의 복무

부적응의 문제는 여전히 군 본연의 임무인 전투력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실태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군은 2005년 GP 총기사건을 기점으로 병사들의 전문적 정신상담청구권을 보장하면서 고충처리와 복부 부적응 병사에 대한 적극적 보호차원에서 군의 상담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담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 시범실시 기간 동안 군 경력자 4명, 민간인 2명을 선발하여 육군 훈련소 등 전방 사단에 배치하였고, 2008년 이후 계속 인원을 점차로 늘려, 2012년 현재 159명이 육·해·공군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주로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상담과 교육, 간부들에 대한 상담 기법 교육,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병사’ 선정에 상담결과를 반영하거나 인성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지휘·조언하는 일, 비전 캠프 수료자를 집중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장 위주 상담활동으로 부대 관리 및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집단 상담 교육 및 교육으로 부대 장병 및 관심 병사 인성 순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육군본부 인사참모부, 2007). 그러나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특히 민간출신의 상담관의 활동에 대해 군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업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자살 우려자, 사고우려자들은 부적응자이며 불우한 가정환경출신자, 심리적 나약자라는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의 원인 진단이나 해결

4) 2006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2005년도 현역복무부적합자는 248명으로 조사되었음.

의 도출을 위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육군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복무 부적응자와 자살 우려자를 대상으로 소그룹 단위로 심리 치료를 하는 '비전캠프'를 시행하고 있다. '비전캠프'는 군단과 사단 단위로 운영하되 2개월에 한 차례씩 3박4일 동안 진행된다. 2004년 6월 30일까지 비전캠프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복무 부적응 관심병사 3,374명, 자살 우려자 450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들 가운데 현역 부적격자 판정이 내려진 경우는 1%(4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대 적응 관리' 대상으로 부대로 되돌아갔다. 또한 비전캠프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징병대상자의 인성검사를 강화해 여과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각 지방병무청에서는 징병대상자를 상대로 신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리검사 검사도구는 2010년부터 신인성검사(183문항)와 인지기능검사(58문항), 질병상태문진표(10문항)에 심리검사 항목(5문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 이상 판정이 나면 정신과 징병전담 의사와 면담, 과거 치료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해 신체등급을 조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군 부적응 예상자를 정밀하게 거르기는 어렵다. 또한 입대 후 신병훈련소나 배치된 부대에서 스스로 정상적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장병들에게 부여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자는 주장도 있다.

복무 부적응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다. 동시에 나머지 90% 장병들의 안전, 더 나아가 생명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미래를 짊어

질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하여 개인적 이유나 부대적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응자가 되어 전역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사회의 부적응자를 만들어 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와 군은 분명 이러한 사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다양한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는 동안, 실제로 부적응병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대의 지휘관들과 복무중인 병사들, 그리고 부적응병사 자신은 힘든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제2의 김일병 사건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대 단계에서 군 복무에 부적응하고 있는 병사를 대상으로 군부적응 유형을 밝혀내고 이러한 군 부적응 유형을 어떻게 식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표적집 단면점을 통해 군복무 부적응을 만드는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상호 작용에 대한 양상과 인권침해적인 요소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생명을 담보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 및 관련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적 과제 및 기초자료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군 복무 부적응에 관한 시각 및 개념적 정의

군 부적응이란 군의 가치나 규범에 일치되고 수용되는 행동을 못하거나 대인관계 또는

부대 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행동을 뜻한다. 신웅섭(1998)은 군복무 부적응자를 군복무를 성공적으로 지속하지 못하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군 부적응에 대한 시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병사 개인의 결함으로 보는 시각이다(신웅섭, 1998; 서만길 등, 2002). 성격장애, 가정불화, 허약 체질 등 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관계되는 병사 개인의 특성이 부적응의 원인이며 이는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부적응의 예측요인으로 활용되어 왔다. 둘째, 군 조직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박현철, 2001). 엄격한 위계질서와 고된 훈련, 인명과 직결되는 무기의 사용 등 군에서 경험하는 고도의 긴장과 정서적 혼란, 불안, 피로 등이 부적응의 원인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개인의 문제와 조직의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기존의 많은 군 부적응 연구들에서는 “개인이 환경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환경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전제함으로써 환경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책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안현의 등(2006)은 “군 입대자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군대 조직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요인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개인의 안녕 및 군대와 일반 사회의 안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현재 나타내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조직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에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문봉진, 2005; 안현의·최병순, 2006; 구승신, 2006). 셋째, 해당 부대 및 가해자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이는 주로 부적응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 소

재 파악 및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이 시각의 가장 큰 부작용은 조직 및 개인들이 문제를 은폐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부적응과 적응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 분류이다. 개인의 행동이 개인이 속한 사회에 수용되고 개인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를 적응이라고 하며 개인의 욕구가 환경 속에서 충족되지 않고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수용되지 않는 행동을 부적응으로 볼 때 이분법적인 시각에서의 적응집단은 정상적으로 복무 중인 집단으로 구분한 반면에, 부적응 집단은 군형법을 어긴 범죄집단(임아심, 2008; 서선우, 2006), 특정 질병으로 정신과에 입원 중인 집단(서만길 등, 2002; 윤형근, 2009)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탈행동과 정신병리로 크게 구분되는 군 부적응에 대한 개념을 통합하여, 군 복무 부적응을 군 입대 후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개인이 군 구성원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대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관리 및 조치가 필요한 병사로 정의한다.

2. 군 부적응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국가인권위원회(2006)는 군복무 부적응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부적응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부적응 집단의 병사들은 부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인 군대 문화’, ‘고된 훈련’, ‘부당 명령 및 처벌’, ‘제대 후 진로 부담’을 꼽은데 반해, 적응 집단 병사들은 ‘제대 후 진로 부담’,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열악한 근무환경’, ‘선임병과의 갈등’의 순서를 보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적응 집단과 적응 집단 모두

대인관계 문제나 군대의 환경과 문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신웅섭, 김용주, 고재원(2007)은 Ivancevich와 Matteson(1979)의 통합모형에 근거를 두어 군대 내의 스트레스원(stressors)을 구체화한 스트레스 진단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군대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은 부대환경, 직무특성, 대인관계, 개인신상 등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군대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은 개인적 성격특성, 즉 심리적 취약성 요인, 스트레스 반응, 사고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육군교도소의 재소자 집단과 일반병사집단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하위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군대 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자살, 폭행, 탈영 등 사고행동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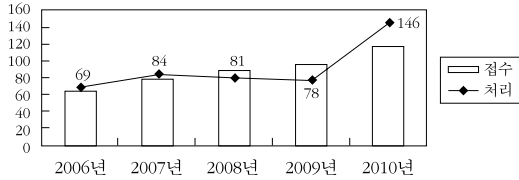
2007년 국방부에서 육군, 해군, 공군에 복무 중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내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일년에 유병률은 24.2%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연령의 일반인구 결과보다 정신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신장애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안장애, 주요우울장애, 니코틴 사용 장애의 유병률이 높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신장애에서 공군이나 해군보다 육군의 일년 유병률과 평생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함봉진 등, 2007).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군 병원 정신과를 찾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전역한 인원은 2006년 367명에 달했다(신웅섭, 2010). 같은 해 현역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된 인원은 345명이었고, 주된 원인은 근무부적합, 사고 우려, 지능 저열 등이었다. 이러한 현역복무 부적격자는 2010년에는 935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결과

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증상은 편집증이었으며, 적대감, 신체화, 대인민감성, 강박, 정신증, 우울, 불안, 공포증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에 분포한 편집증, 적대감, 대인민감성은 모두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관련된 증상으로, 부적응 병사들이 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신웅섭 등, 2010).

군생활 부적응의 주요 양상이자 병사의 자살을 초래할 수 있는 장병의 우울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고기숙, 2009; 구승신, 2006; 김동연, 2009; 서혜석, 2009). 고기숙(2009)의 연구에서는 중우울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서혜석(2009)은 입대 6개월 이하의 병사가 우울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직무 스트레스가 우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김동연(2009)은 군생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가 병사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절망감이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3. 군 복무 부적응 실태 및 그린캠프 관리 현황

1968년 육군의 “인간관계 개선위원회”에 의해 실시된 병역조사가 유일한 최초의 군 부적응에 관한 역학조사로서, 1.5%의 장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1981년의 조사에서는 국군 교도소 입소시 MMPI 검사 결과 약 45%가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1995년 육군 자료에 의하며 13%가 신체 및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대 당 10~20명이 관리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에는 군 자살자의 34.5%가 복무 부적응이 이유였으며, 2003년 조사에서는 이유가 밝혀진 군 자살자 65명 가운데 복무 부적응자가 16



〈그림 1〉 군 관련 연도별 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명으로 25%에 이르렀다. 2006년 정신과 활용 실태를 보면 약 3%가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정신과 진단 후 전역한 병사는 367명이었다(신웅섭, 2010). 〈그림 1〉에서 보듯이 ‘군 관련 연도별 진정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군복무상의 부적응은 당사자인 병사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동일 구성원들의 군복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군

기사고가 현저히 감소하고는 있지만, 복무 부적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복무부적응은 불평불만, 불안, 공포, 분노, 심리적 혼란 및 무력감 등의 정서적인 반응으로 나타나, 어떤 유발사건에 의해 내부에 잠재해 있던 문제들이 폭발하게 되고 폭행, 자해, 군무이탈, 자살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병사들로 하여금 군 복무를 원만하게 하는 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며, 집단적 차원에서는 군의 사기와 전투력 강화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6년부터 2005년(10개년 간 육군 사고사례 분석)의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사고와 사고의 원인을 고찰해 보면, 군에서 발생하는 군기 사고 중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사고(29.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적감정/시비가 20.7%, 사적제재가 7.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표 1〉 군기사고 원인별 분석(육군)

구분	계	복무 부적응	사감 시비	용돈 조달	사적 제재	술주정	선임병 행포	여자 관계	가정 사정	처벌 우려	기타
계	42,734	12,852	8,928	2,892	3,056	2,312	1,810	1,693	1,375	1,241	6,200
(%)	(100.0)	(29.8)	(20.7)	(6.7)	(7.2)	(5.5)	(4.5)	(4.0)	(3.3)	(2.9)	(14.0)
'96	5707	832	1162	418	530	237	361	198	158	174	1637
'97	5717	938	1121	345	357	274	329	195	184	166	1808
'98	5759	2133	1052	366	353	323	221	311	204	187	609
'99	5764	2009	1230	356	270	298	248	303	177	169	704
'00	5194	1789	1169	304	335	252	170	134	149	118	744
'01	4537	1970	1031	236	282	208	129	128	136	124	293
'02	3781	1727	817	270	251	218	82	110	119	89	98
'03	3229	712	688	311	348	249	149	174	109	124	181
'04	3046	742	658	286	330	253	121	140	139	90	126
'05	2813	740	521	190	214	204	233	130	133	96	186

자료출처 : 육군본부(1996-2005), 『사고분석』.

〈표 2〉 병류별, 부대별 현역병 입영 귀가자 현황

구분	인도	계		결핵	내과	신경정신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명	%									
계	156,978	6,151	3.9	75	1,312	2,129	1,810	232	109	164	114	206
육훈	38,296	2,539	6.6	41	536	702	861	67	55	109	58	110
306보	54,129	1,205	2.2	21	299	217	474	126	20	19	21	8
102보	31,807	611	1.9	7	183	176	117	13	21	14	19	61
2군사	32,095	1,744	5.4	6	288	1,012	347	26	13	20	13	19
해군(상근)	651	52	8.0	-	6	22	11	-	-	2	3	8

자료출처 : 병무청 현역입영과

것은 군기사고의 원인으로서는 인간관계와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인관계와 기분 통제, 분노 조절 등의 훈련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011년 현역병입영 귀가자 현황을 병류별, 부대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병류별로는 신경정신과적 사유가 귀가자 6,151명 중 34.6%인 2,1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과적 사유와 내과적 사유 순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군에서는 군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사고사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군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된 심리검사를 활용하거나, 고충상담소 운용, 1인 1종교 가지기 운동, 자살예방 세미나, 분노 조절 프로그램, 계급별 간담회, 비전캠프나 그린 캠프 등과 같은 부적응자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한 상담 및 교육, 군 인성교육 등이 있다(이주실, 2006). 특히 육군에서는 복무 부적응 병사들을 위한 그린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캠프의 입소 대상자는 지휘관의 면담과

행동 관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 결과 등의 다각적인 자료를 기초로 자살 우려자, 정신질환(인격, 적응 장애), 복무 기피자 등으로 판정된 병사들로서 이미 입대전 환경에서부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자살, 자해 포함 과격 행동을 시도했던 경험을 가진 자들도 많으며 의무 복무라는 군 복무 제도에 대한 불만감이 내재해 있는 상태에서 자살, 자해, 언어적 표현 등으로 복무 부적응의 모습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인원들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병사들이다. 이들의 성향은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부대 생활을 하기에 제한사항이 많은 것으로 군에서는 분류하고 있다.

입소 현황을 보면 그린캠프를 시행한 '09년 4월 이후 '12년 전반까지 총 12,943명이 그린 캠프에 입소하였다. 이행 원년부터 사단이나 여단급에서 캠프를 운영하였지만 '11년 하반기부터는 군단급에서 운영함. 매년 3-4천명이 입소하며 올해 전반기엔 1,262명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병의 비전캠프 입소사유는 〈표 3〉에서 나타나듯이 관심요망사유가 가장 많고, 자살충동 순이며, 부적응사병에 대한 도

우미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입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할 때 비전캠프를 운영한 회수와 관심사병 및 자살충동에 따라 입소자 등이 조금씩 줄고 있다. 2012년 전반기는 관심사병과 자살충동에 따른 입소자가 2010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운영회수와 도우미로 입소한 경우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의 비전캠프의 내실화를 위한 일부 개선된 방향으로 여겨진다. 군당국에서는 입소인원이 줄었음에도 2010년과 유사하게 입소운영회수와 도우미를 활용한 것은 비전캠프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 이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비전캠프 입소 계급별 분석을 보면, 최근 3

년까지 최하위계급인 이병의 입소가 가장 많다. 즉 일반사회에서와 다른 군 사회에 일원으로 활동한지가 얼마되지 않는 이병들이 부적응하여 관심사병이 되고 부적응의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 및 자살충동의 비율이 높은 결과는 한편으로 당연시 된다. 문제는 어느 정도 군 대사회에 적응한 일병의 입소비율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2010년, 2011년과 비교할 때 2012년 일병의 입소비율은 이병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다. 이는 적응 기간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군대내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일병계급에게 과중한 부담감이 부여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이병의 적응교육 및 훈련, 내무반구성원 중 상

〈표 3〉 병류별, 부대별 현역병 입영 귀가자 현황

구분	계급	입소인원(명)	입소 사유별		
			도우미	관심요망	자살충동
2010년	계	5,662	843	3,689	1,130
	하사	18	7	10	1
	병장	283	244	31	8
	상병	704	419	243	42
	일병	1,542	145	1,090	307
	이병	3,115	28	2,315	772
2011년	계	4,258	793	2,623	842
	하사	1	0	1	0
	병장	229	207	20	2
	상병	609	392	174	043
	일병	1,163	152	776	235
	이병	2,256	42	1,652	562
2012년 (1.1~6.30)	계	2,111	431	1,286	394
	하사	1	0	1	0
	병장	88	81	7	0
	상병	321	209	93	19
	일병	776	103	519	154
	이병	925	38	666	221

자료출처 : 국방부(2012), 내부자료.

하계급간의 허리역할 등의 어려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면접조사 과정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군부적용 병사의 유형과 관리방안에 관한 심층적인 부분과 밀도있는 내용탐구를 위해 현장에 나가 관계자들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거나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군복무부적용자 인권상황 및 관리 연구의 효과성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과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특히 표적집단면접방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개인 대 개인의 접근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응답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응답자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욕구·태도·감정 등을 발견하는 조사방법이다.

이러한 면접의 조사과정은 먼저 국가위원회의 담당자를 통해 국방부의 인권과와 병영정책과의 협조를 얻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업무 담당자의 명단을 받아 본 연구의 개요와 업무협조 사항을 안내해드렸다. 그런 다음

군의 일정과 방문날짜를 상호 조정한 다음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합의한 날짜에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방법은 먼저 관련업무 담당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의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군 부적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병사를 어떻게 식별, 관리하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후 그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병사들을 면접하였다. 주로 3~5명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형태로 실시되었으나 면담자의 요청 혹은 연구자의 판단 및 부대 상황에 의해 일대일 면접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면접대상자를 살펴보면 육군은 (병사 31명)에서, 해병대(병사 5명, 간부 5명)와 해군(병사 5명, 간부 3명), 공군(병사 3명)은 자대 단계에서 총 52명의 복무 부적용 병사와 간부를 면담하였으며 <표4>와 같다.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었다. 방문일정 및 면담자는 다음과 같다.

2. 면접지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군복무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데?”의 핵심주제를 물어 본 후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답변들을 토대로 서로 공유의 시간을 갖고 준비한 면접지침

<표 4> 면접일시 및 대상

구분	면접일시	방문처	면담자
1	6월 13일 수 2시	××해병대 사령부	상담관, 군의관, 간부 5명, 병사 5명
2	7월 6일 금 2시	××함대 사령부	병사 5인, 간부 3명
3	7월 12일 목 2시	□□□ 비행단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병사 3명
4	7월 16일 월 2시	★★ 그린캠프	병사 11명
5	7월 19일 목 2시	☆☆ 그린캠프	병사 11명
6	7월 24일 화 1시	◆◆ 그린캠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인사담당자, 병사 9명

사에 따라 질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구조화된 면접에 대한 의존과 연구대상자의 풍부한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구조화의 형태로 면접지를 구성하여 응답자의 편의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다소 조정할 수 있어 심도있는 질문과 내용을 이끌어 내었다.

면접지는 “군복무생활에서의 부적응 문제와 이를 식별하는 과정 및 관리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본 핵심주제 질문에서 파생된 면접질문으로 부적응 문제를 군 입대전에 가지고 있었는지, 자대 배치 단계 이전에서의 식별이나 본 문제 호소를 어떻게 했는지, 그럴 경우 어떤 개입 및 처리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1. 군복무부적응 유형을 나타내는 병사의 특징은?
2. 군복무부적응자와 군복무기피자의 식별 방법은?
3. 군복무부적응자에 스크리닝 과정, 절차는?
4. 군복무부적응자 판정 병사에 후속 개입 및 과정 절차는?
5.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군의관과의 협력 체계는?
6.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의 장점 및 한계는?
7. 외부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 정도는?
8. 현 단계까지의 국방부의 노력 및 여러 프로그램의 효과는?
9.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정도는?
10. 판정에 대한 병사들의 반응 및 재심사 병사에 대한 비율 정도?
11. 군복무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군복무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병사들의 면접내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내러티브(narrative analysis)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내러티브 분석은 실제 혹은 허구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것 또는 기술(writing)이라는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말로서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로 엮어진 실제 혹은 허구적 사건들의 연결을 의미한다. 내러티브는 연구자에게 심층면접 대상자가 펼쳐 보이는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하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건이나 감정의 발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내러티브 분석은 이러한 전략을 ‘현실’ 세계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을 동일시하게 되어 면접 대상자가 놓여 있는 현실을 잘 이해하고 외현화된 문제 및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IV. 연구결과

자대배치단계에서 부적응 병사에 대한 식별은 신병 1개월 때 간단한 심리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식별하는데 약 10-12%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병사의 경우, 선임의 괴롭힘을 사실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맡은 업무가 적성에 안맞는다, 가정에 문제가 많다, 정신병원에 다닌 적이 있다 등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신병길들이기라는 과정을 지나면서 선임들의 과오가 발생하고, 신병들

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군에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나 복무 변경 후 부적응 문제가 해결된 사례도 면담 중 있었다.

자대배치단계의 병사 운영 및 관리 현황과 문제점은 첫째, 지속적인 사고예방에도 불구하고 악습에 의한 사고발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휘관 및 간부의 꾸준한 생활관 관찰과 감독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지휘관의 연중 업무과중으로 항시 관심병사관리에 대한 지휘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임원사의 겸직으로 집중적인 병사관리 및 전문 상담관 역할수행이 곤란하다. 그리고 간부들의 상담기법의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직된 분위기로 지휘체계에 대한 맹종이었습니다. 현재는 혁신병영문화 정책 시행하려고 노력중에 있어 중간에 있는 대대장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초급간부는 업무과중으로 귀찮아 한다. 장교는 진지하게 들어주는 편이다. 소리함은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만 바보되는 느낌이다.”

셋째, 부적응 문제요인 내포자 신상과악 미흡 및 피해자의 신고의지 결여이다. 형식적 면담으로 문제요인 조기발견/선도가 실패되고 있으며, 신고 후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집단매도가 우려되어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고충 신고자는 그들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

을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만약 신분이 노출되면 집단매도의 피해가 심각합니다(왕따). 명예회복보다는 부대원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부담이 크고 떳떳하지 못한 밀고행위를 했다고 집단매도 당하게 됩니다. 부대원과의 모든 활동에서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어 타부대로 전속을 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사고발생시 언론보도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여론에 휘말려서 병영생활 복무규정의 판단이 흐려지고 있다. 관심병사의 과잉보호로 인해 정상적인 병사의 상대적인 불평등이 호소되고, 사고처리 후 가해자는 오히려 활개를 치고 피해자는 죄인처럼 당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부대에서 운영하는 관심병사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관심병사로 지정되면 너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관심병사의 의사는 중요치 않고 부대관리차원에서 간섭하거나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며 병들사이에서 이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합니다.”

다섯째, 병영생활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 병영생활 일과 후에도 병영생활에 대한 통제로 인식하고 부대의 생활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통제위주의 병영생활 지휘 및 감독을 실시하여 병영생활에 대한 간부와 병들 간 인식의 격차가 심하다. 여섯째, 타성에 젖은 일부 간부들의 무책임한 언행으로 내리갈굼의 행위가 조장되고 있다. 저속한 폭언으로 병사들의 자존심이 훼손되고 있으며, 후임병의 잘못으로 인해 선임병에게 호된 질

책을 받아 자신 또한 후임병에게 더 강도 있는 질책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입신병의 직무능력 부족 시 부서 선임병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문화와 과거 경험에 의한 병력통제로 당직근무 활동의 일관성 결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우격다짐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군 특수성으로 인해 군 부적응 병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리를 끊는 병사 대상의 교육이 필요한데, 생활관장의 자질 향상, 위상 확립, 권위 신장 등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수는 신병의 신상에 대해서 수시로 생활관장에게 보고합니다. 교육기수는 맞기수를 통제하고 맞기수가 신병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교육기수는 후임병 계도를 위한 내림갈굼 행위를 합니다. 교육기수는 생활관장과 선임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예비점호 및 갈굼 행위가 발생하고 으뜸 병사가 되더라도 가지 부대 현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가혹행위나 구타 발생해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으뜸 병사가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당했다고 고참의 권리를 누릴 상황에 되면 권리 포기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병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극한 상황이 되면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다시 복귀하려고 했을 때 명예 회복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에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조사하고 나면 병사들에게 신상털기-집중적으로 공격-확성기-낙인찍힘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병사가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여 모든 신상 털리고 확성

기로 전파되어 버려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나락으로 빠지게 된 사례로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수습 가능합니다만, 군 조직안에서는 수습이 불가능하고 족쇄가 되어 버립니다. 불합리한 것을 지적했다고 확정기가 되어 문제 제기한 사람만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딱내는 다음의 5개말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일곱째, 병사들은 병영생활 지침의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간부들의 통제 없이 선임기수별 중심의 병영생활로 잘못 이해하고 선임병의 권위외식 팽배로 후임병의 인격, 자존심을 무시하는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 군대란 원래 이런 곳이라는 의식팽배로 선임병의 악습행위가 정당화 되고 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결국 신고자는 누구인지 알게 되고 신고 후 생활이 더 힘들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충을 호소해도 가해자 처리가 불확실할 것이라는 불신감이 내재하고 있다.

“부대분위기(악습)가 전입신병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혼란스러움을 가져옵니다.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에 대한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위상확립을 위한 몸부림이 통하지 않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도 무력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오직 인내해야 하고-힘이 들어도 괴로움을 사실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현실도피 수단으로 질병, 부적응 등의 괴로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 판단기준의 모순에 당황하면 서도 적당히 타협합니다. 고충을 상담하면 <더 힘들어진다고>는 부메랑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신고자는 왕따로 이어질까봐> 신고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옳고 그름 판단기준의 모순을 쉽게 수용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힘의 우열이 결정되면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아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합니다. 선임병으로부터 군 생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군대가 없어지지 않는 한 현 악습행위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선배들도 겪었고 앞으로 입대하는 후배들도 겪을 것이라는 것, 후임병이 들어오면 단계적으로 편해지고 시간이 해결해줘 <전입신병은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힘 있는 소수 인원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개인의 성향에는 반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부터 고립되거나 배척당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침묵하거나 대세를 따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해자와 옹호집단은 당당하고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가해자 동정론이 우세하고 밀고자를 찾기 위해 공공연하게 활동합니다(정황, 필적, 심증 등). 피해자가 출현하

면 대화 중단/침묵/자리이석 등 투명인간 처리합니다. 뒤에서 손가락질, 빈정거림, 비웃음 등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부대원과의 모든 활동에서 소외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자대배치 단계에서 필요하다. 첫째, 근무 여건에 대한 조성이다. 이는 면담에 참여한 모든 병사가 군생활 중에 바라는 점으로서 건강하고 싶다, 공부, 운동 등 자기계발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또한 선임 눈치, 업무 중 차출 당함, 일에 대해 잘 모르고 투입됐을 때 실수가 가져오는 질책으로 인해 이병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업무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부대 일과표가 있어도 계급에 따라 체감 시간표가 다릅니다. 시간이 있어도 자기계발, 동아리 활동 등 선임 눈치가 보여 하지 못합니다.”

“이/일병 식당청소시간이 과다 합니다. 평균 일일 3시간 소요되고 휴식, 자기계발 시간이 부족합니다. 과도한 청소 투입으로 자유타이 축소되고 시간이 있어도 선임병 눈치로 자기계발/동아리 활동 못합니다. 병장/상병은 대체로 자유타이 보장됩니다”

둘째,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생활관에서의 지침을 자율적으로 확립하여 상하가 서로 조율을 하며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관장(8~12명 생활하는 곳의 우두머리)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제

역할을 바르게만 한다면 끼어들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며 조금 능력이 부족한 병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대안 창출, 긍정적 인식하기 등에 관한 교육이 요구된다.

“내가 편하기 위해 신병들이 죽는시늉까지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생활관원의 불균기 행위에 대한 생활관장의 제재조치 미흡으로 군 기강이 문란해 집니다. 음성적인 조직에 의한 먹이사슬로 인해 전입신병을 제외한 전원이 가해자요 피해자입니다. 왕고의 영향력 행사로 생활관장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불균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활관 기강이 문란해 집니다. 후임병의 불균기 행위에 대한 해결창구가 모호하고 동작이완 및 패기가 부족합니다. 군대예절 상실 및 군풍기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넷째, 지휘관, 영외자, 선임병, 후임병(경험, 지식, 가치관 등)의 조율이 필요하다. 지휘관, 영외자, 선임병, 후임병 등 상호간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할 수 구조가 필요하며 이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휘관의 명령이 병사들에게 전달되어 일이 바로바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잘 안되고 병사간의 아주 작은 문제라고 지휘관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 흐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든지 말단 병사에게 전파되지 못해 실제 병사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영외자가 길목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일정 규정된 시간 이후의 자율시간은 체감적이므로 당직사가 일과를 자세히 알고 있다면 사고 예방 미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정 규정된 시간 이후의 자율시간은 체감적입니다. 사실 가장 후임병은 자율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가장 막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피로움과 힘들어 많습니다. 영외자들이 길목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섯째, 이미 실시되고 있는 좋은 성과 있는 프로그램의 사례공모와 보급, 활용 등도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전역을 앞둔 병사들에 대한 진로지도, 상담을 하자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직급에 맞는 예를 들면 일반 병사 - 장학금 비법, 학습지도 / 일등병 - 업무의 달인 되기 / 이등병 - 군대의 의미, 사랑에 대한 개념 / 병장 - 비전, 꿈 등을 주제로 교육이 실시되고 이러한 우수프로그램 및 사례 및 모델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이러한 병사를 따돌림 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교육, 스트레스 대처 및 분노조절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심층면접에서 부적응 유형의 공통점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체력 열악, 성격 장애 및 대인 기피, 조직의 문제: 기수 문화, 내리갈굼, 가혹 행위 발생해도 실체가 드러나기 힘든 구조, 자율성 부족, 본인 노력만으로 힘든 부분이 존재함, 신고 후 비밀 보장되지 않아 집단 매도의 우려, 불신감 팽배로 나타났다. 또한 간부와 병사, 지휘관 시각차이가 크고 관심 병사

제도와 또래 상담병, 소원 수리함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에 대한 의견도 병과 간부의 시각이 달랐다. 간부의 경우 병사들이 간부를 고자질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호소하고 있었고 병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대로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수 문화로 꼬인 기수/열린 기수의 존재, 편제상 일을 균형있게 분배하기의 어려움, 일부 생활관에서 음성적인 조직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감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남성적인 멋에 이끌려 군에 입대하였으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훈련 및 적응생활, 부모님이 해병대인 경우 자식에게 강요하는 경우, 막연한 기대감으로 입대하나 현실과 달라 부적응 요소 발생, 간부보다 선임을 무서워하는 분위기 대대장에게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패배의식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해병대에 입대하는 경우가 많아 멋있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가정이 어려운 경우 막연한 기대감으로 옵니다. 차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 우수한 병사들이 많이 오지만 막상 경험해보니까 현실이 달라 힘들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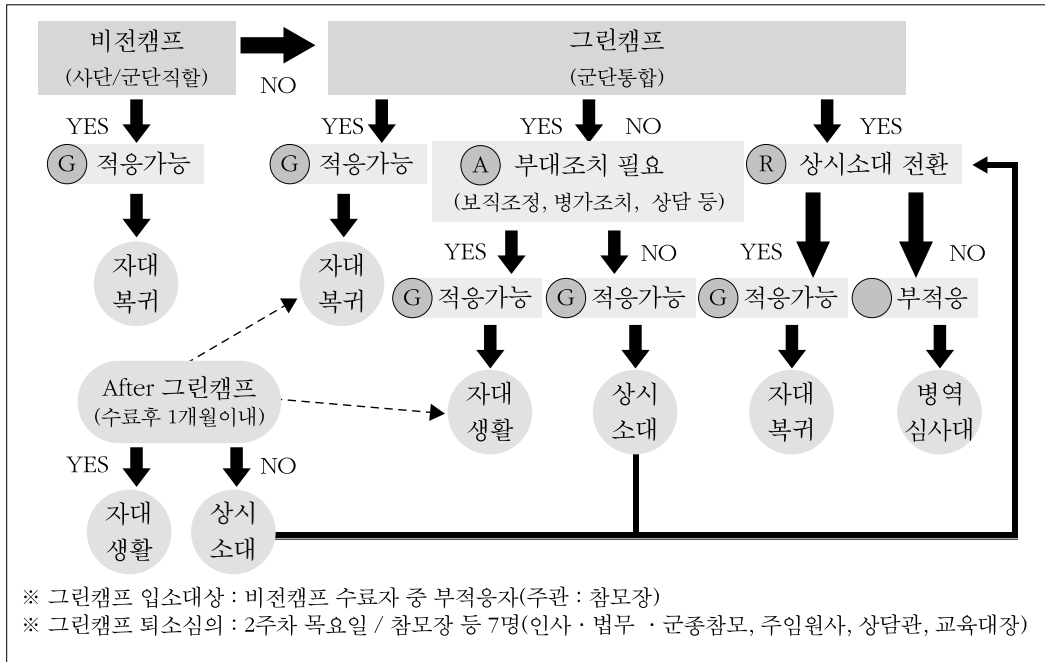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개인 적성 보다는 강제 배치로 인한 부적응 요소가 출현되어 각 군 모두 동기 생활관, 지속적인 교육(상담, 리더십) 등에 관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적 성격이 가장 큰 문제지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군의 인사배치제도가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임들이 나쁘지는 않지만 자신이 잘못하여 지시사항이나 임무 불이행에 따른 지적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솔직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울기도 하고 응어리가 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외부 탓으로 돌리는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신입병 시절의 외부 근무를 마친 후 OO근무로 행정병근무에는 만족하였지만, OOO지원대 근무배치에 따른 불만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없는 분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강제배치 시켰기 때문입니다.”

육군에서는 예하부대 지휘부담 경감 및 안전문화 정착으로 선진병영문화 육성을 위해 비전 및 그린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1주차에 입소 대상자를 심의하고 있으며 비전캠프 수료자 중 부적응 현상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자에 한하여 부대복귀 후 그린캠프에 다시 입소시키고 있다. 또한 2주간의 그린캠프 참여 후 병역심사대 입소대기자에 대한 지휘부담의 해소를 위해 ‘After 그린캠프’ (1달 이내 1회 정도 실시)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사 병역관리 심사대는 입소가용인원(12명)의 제한으로 최소 2~3주 대기기간이 발생하는데 2011년 9월 3일부터 상시 그린캠프를 운영하여 예하부대 병력관리 부담을 해소시키고 있다.

관리인력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중대장, 소대장, 교육장교, 안전 장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제한된 역할만 하게 되고 예하부대까지 상담관이 못 미치는 부대도 있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군부적응 병사를 식별하기 위해 중대장의 관찰 및 행동기록, 비전캠프 입소, 자대에서 식별, 신인성 검



〈그림 2〉 그린캠프 운영 체계도

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질병이나 진료 필요 시 바로 조치가 어려우며 정신과 질환의 경우 입실할 때 부모님 등의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단계에서 병사들은 우울증, 불안, 이성문제, 가정문제(이혼 가정), 군 복무 기피, 집단에서 열외, 대인기피, PTSD, 경계선 지능, 인격장애(반사회성), 수직적 조직 사회, 개인적 취약성(조울증 등), 입대 전 왕따 경험, 아스퍼거, 분노폭발성 장애, 내성적 성격, 과거 자살 시도 경험, 선후임 갈등 등의 유형을 나타낸다.

개인적인 기질도 있지만 군 특수상황에서 부적응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선임들과의 관계이다. 또한 이런 캠프를 다녀오면 주변사람들의 눈치와 소문 때문에 더욱 더 군

대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고 아예 낙인이 찍혀 현부심단계로 가 제대하고 싶어하였다. 또한 훈련 중 부주의한 사고로 인해 불안, 강박, 공포증이 생긴 사례도 있었는데 군에서 개인훈련 미숙으로만 처리하고 그 이후 정신과적인 치료나 상담을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입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군대와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있었으면 해요, 답답한 느낌, 활동적인 성향이 아닌데 군대에서 그걸 강조해서 어쩔 수 없이... 1차에서 우울증 나타났는데 면담에서 티내기 싫어 정상인척 했어요. 공동체 생활이 없었으면...”

“불안, 우울.. 사회에서도 갖고 있었어요... 병무청에서 불안 우울한 것으로 나왔는데 면담에서 특별히 티내기 싫어서.. 병 있다는 것이 한국에서 더 나쁜쪽으로 보니까... 숨졌어요... 혼자서만 어떻게 해라 이랬던 거 같고.... 계속 뭔가 억압받는 느낌 구속된 느낌 간헐있는 느낌... 딱히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없었어요. 분대장 소대장이 잘해주시겠다고 말씀... 하셨던 말씀 어긋나고.. 혼자 소외당하고 버려지는 느낌... 불신이 많이 생기고...”

“우울... 캠프에서 편하게 있는 것은 좋은데... 치료받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쉬다가는 느낌.. 결과 안 좋으면 어디로 보내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우울 검사결과 때문에 여기에 왔어요.. 앞으로 군 생활하는데 제한이 많을 것 같아요... 간부님들이 우호적인 편이나... 작업이나 하고 내버려두는 편...”

“군생활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2년동안 여기 있어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님 이혼해서 친척집에 살거나 쉼터에 오래 살았어요... 어머니 1,2년 전에 만났어요. 어머님 경제력이 안 좋아서 이제야 같이 살게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고등학교 차퇴하고 알바하고 했는데 직업학교 가서 방위산업체 갔다가 사유가 있어 그만뒀서 어쩔 수 없이 군대 들어왔는데 우울증, 자살충동이 와서... 병무청에서 검사했을 때 제가 가장이고 모자가정이어서 안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물어볼때마다 자

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안됩니다. 안됩니다. 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도 안된다고 해서...”

“부대에선 약간 저를 내버려둬... 집단에서 이탈에서... 소외된 느낌들..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니까... 부대가 바뀌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전문대 졸업하고 나서 그런 증상들이 있어 집안에서만 있고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는거 안하고.. 혼자만 많이 있었음... 그런 증상이 나타난 시기는 1년 반정도... 군대 오기 전 피엠티엠티약 받아가지고... 부모님도 모르시고 계셨음. 피엠티엠티 받았음... 혼자 가만히... 이런 증상이 나타난 시기는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충격을 받아.. 삼촌 시체를 봤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얘기와 상황이 계속 생각나서... 제철소에 일하시다가 굴뚝에 떨어지셔서... 저녁에 어두울 때면 어두운 곳에 가면 그런 것이 심해짐... 훈련소에서 얘기하고... 유급되서 다른 중대로 옮겼는데 처음 있던 중대에서는 현부심까지 생각하셨다고.. 계속 병원갈 때도 중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중대로 옮겼는데 거기서 특별히 말도 없고 진료도 특별히 신경안써주고... 니가 훈련소만 수료하면 자대에서 다 심사 받아볼 수 있다고... 우선 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라.... 군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나 도움될만한 것이 없다...”

“연습용 수류탄을 하다가 상관지시를 잘못 들어서 손에서 수류탄이 터졌음... 수류탄을 지참하고 경계선다고 해서.... 수류탄 터져 다친 곳은 없었으나 다른 심리적 치

료 없이 그냥 혼나고 말았어요..
박격포 훈련에서 너무 두려워 열의를 받았
어요... 그런 위협적인 총구들 말고도 총을
쏠때도, 총기 손질할때도 이상한 생각만
들고.. 탱크도 이상한 반응이 일어났어
요... 몸이 부르르 떨리고... 부모님한테 어
려서부터 들은 소리가 세상 돌아가는 소리
좀 들어라... 근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두려움...북한군 관련 영상.. 똑바로 쳐다
보지 못하겠더라구요... 김정일 죽을 때도
북한에 대한 공부도 하기 싫었고 접하기
싫었어요.. 천안함 사건도 군대에서 처음
들었어요..”

“누군가가 내 모습을 지켜보지 않나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제 증상을 잊을 수
는 있지만 완전히 고칠 수는 없을 것 같
다... 병무청에서 검사했을 때 이상 결과
안나오고 나타내고 싶지도 않았고.. 군대
자신있게 왔으나 이런 문제 시달리게 될
줄 몰랐다. 제 주변사람들이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어제
까지 10대였던 것이 20대여서 가족을 부양
하게 되나... 살아가는 거 자체도 부담스럽
고 괴롭다.. 사람을 많이 못믿고 인간혐오
증이 있다... 다 있겠지만 부모님이 사이가
안좋아 어려서부터 싸우는 것을 많이 봤
고... 사춘기에 와서 주변사람들을 못믿게
돼서 사람들한테 문을 닫고...”

“연구자: 군생활하시면서 어떻게 가장 힘든
가요?

병사1: 선 · 후임간 갈등이죠. 특히, 부대

선임이 다른 동기와 저를 비교할 때 힘들
니다. 또 아플 땐 눈치도 보입니다.

병사3: 대부분 선임 때문인 게 70~80% 정
도 됩니다.”

“선임들하고의 어려움, 실수하면 뭐라 해요”

“군대 생활시 가장 힘든점 몸이 군대에서
허리가 안좋아지게 되었어요. 자대오기전
환경관리하다가 무거운짐 들어 뼈긋하여
허리디스크... 비전캠프 다녀왔는데 단장
님이 신청하셔서... 단장님이 신청해주신
것이 어떨떨하기도 하고 쉬다가니까 고맙
기도 하고... 비전캠프 갔다가 다시 그린캠
프로 바로 옴... 군대오기 전 정신과적 문
제 없었음. 간부나 멘토병사 없이 혼자오
면 더 좋을 것 같다.. 선임이라서 그 분들
눈치 봐야 함.. 여전히 눈치 봐야 함.. 불편
함.. 일부러다친 것도 아닌데 주임원사님이
나 자대에 있는 중대장님이나 병원가라고
하셨는데 선임들이안좋게 봄. 차이 많이
나는 선임들하고는 괜찮은데... 별로 차이
안난 선임들은 안좋게 보니까 그게 좀 힘
듬... 현부심 받아보고 싶어요...”

“많이 참거나 버티거나 함...스트레스 다
받기는 한데... 어느 정도 세월을 지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
는데... 한번 밀보이면 사람을 사람취급 안
해줌.. 수습이 불가함... 군대에 필요한 건
자유인데... 훈련할 때 훈련하고 쉴뎌 쉬어
야 하는데....”

“선,후임관계 심한 건 아니지만 계속 눈치
가 보이고 보직 바뀌었는데 다시 하고 싶

은 것만 한다고 선임들이 생각하니까 친해 지려고 해도 친해질 수가 없을 것 같다...”

“갔다와서 이미지가 안좋게 됨.. 벌써 동네에 정신병자라고 소문났다고 해요...”

“와본 사람들은 어떤건지 알고 이미지가 되는 것이 좀 쉬다 왔다... 제 이상해서 거기 다녀왔다... 자대가도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 않음... 열심히해도 알아주지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부풀려서 엄청나게 갈구니까...”

“간부들이 병사를 좀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다...군대에서 자기자신의 믿을 사람이 없다.

간부들이 좋은 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같은 계급이어도 선임이면 불편해요.. 억지도 버텨 보자.. 최고 선임자가 되면 나아지니까....”

“개인정비시간에도 막 선임들이 주기(자기 이름 새기는 거) 일병에게 다 시키고 강요해요..

사생활, 자유시간에도 계속 간섭... 후임한테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하고...”

“군가 못외우면 엄청 뭐라고 하고.. 암기강요가 엄청 심함..”

“생활관에 누워서 뭐 물어봐서 대답했는데 다른 선임이 누워서 대답했다고 뭐라고 함.”

“어느 사회생활을 하던지 간에 군대보다는 나음.. 사회에서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남의 것도 해줘야 하고,,, 후임병들이 몰라서 잘 못하는건 이해하는데 선임병 것까지 해줘야 함..”

“후임이 잘못된 걸 바로 윗 선임한테 계속 혼내고 욕먹고... 나도 후임한테 혼내고... 해서 후임하고의 사이도 나빠짐..

지적을 안해주고 바로 욕만 함... 다짜고짜 와서 욕함.. 적응을 잘 못하는 병사들이 많음..”

“이동병오면 계속 참다가 후임오면 스트레스 후임병한테 품... 근데 스트레스 쌓이는 부분을 화풀이를 못하고 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화를 속으로 삭히거나 자기표현 많이 못함..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를 후임들한테 그냥 풀어버림...”

“근무가도 선임들이 화풀이할때가 많음.. 그냥 개인정비 아예 안줬으면 좋겠다..

잠이 중간잠되는 사람은 후임이랑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땐 편안데 안좋았던 선임이랑 부사수가면 힘들다... 스트레스 받고... 주위에서 말려줄 사람이 없고...”

“마음의 편지가 있긴 한데 간부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간부들이 처리를 모아놓고 실명을 밝히지 않지만 이런게 나왔다고 얘기하면 다 아니까 마음의 편지를 쓴 사람이 따를 당하게 됨.. 후임이 무조건 잘 못하게 되는 것으로 됨....”

“준중을 잘 안해줌.. 자기말이 무조건 맞다고 하고... 이등병이면 이런거 몰라도 되나... 간부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을 그나마 좋게 얘기하면 잘 풀릴 수가 있는데 병장, 상병, 일병, 제일 이등병이 모여서 깨지니까... 자신감, 주눅들.. 시키는대로 했는데도 쌓이고 쌓임..”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등병 취급,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후임까지 무시해요. 계속 인정도 못받고 욕을 먹으니 선임에 대한 분노감(잘못하면 하극상 가능성 있다고 함)”

“선임이 일 못하고 의욕없다고 무시..... 이런 상황을 간부들이 인지 못하거나 알아도 덮으려고만 해요. 그 위까지 전달되지 못해요.”

“믿고 터놓을 수 있는 상대가 없다. 동기 끼리는 통하지만 동기조차 부조리 겪고 있는 상황”

“설문조사(계급별로 하지만 보안이 부실함(간부들이 수거하여 중대 본부로 보내면 공개되고 소문이 나게 됨 신상털림, 부조리 적은 인원은 선임에게 찍히고 제재를 당함, 끈지른 병사로 낙인찍힘-처음 10kg의 부담이 꼬리표 달면서 점점 가중되는 상황임). 쓴 사람만 바보되는 현실, 전출되어도 계속 꼬리표 붙어 다님”

“개인정비 시간은 자유시간이지만 일 이

병때는 휴식할 수 없음(허드렛일 동원 또는 훈련 상황 대비-다같이 일을 분담하지 않으며 고위급 간부들이 진두지휘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병만 동원 됨)

감기 등 몸살이 나도 일/이병은 눈치가 보여 외진 거의 못함. 나쁜 선임 색출 힘들거나 알아도 건드리지 못함(보복의 두려움, 일 대 다수의 싸움”

“선임의 감정에 따라 참아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어느 순간 선임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 너무 참다보니 분노 두려움이 많아짐, 계속 자대 있었다면 사고가 났을 것, 그린캠프 2주 동안 분노 조절 가능-퇴소 후 사단 의무대에서 민간 병원 갈 예정입니다”

“그린캠프에 오기 싫었는데 어느 곳에 가도 답답하다. 가만히 있고 싶는데 자꾸 어디로 보내려고 하고 보낸 사람에 대해 분노.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혼자 생각할 시간과 공간 필요함. 입소 전에는 우울증으로 약물 처방 계속 받았음”

“선임에게 매일 혼나는 후임이 있다. 후임이 당하는 것은 생활관에서 모두 알지만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 (전에 알렸더니 진술서 2장 쓰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선임이 그 이후 계속 괴롭히지만 겁에 질려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못한다고 함) 일이 발생하면 부대에서는 쉽게 조치하려고 하다보니 간부들도 실제 병들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고 ‘그것도 못 참냐’ 하면서 더 고통을 줌, 막내는 계속 자살 충동, 일

과 후 휴식시간에 선임이 계속 일 시킨다 (예-잠도 못자게 한다. 그러다 보니 훈련 때 쓰러지는 경우도 많다고 함), 간부들은 선임 때문에 후임들이 잠도 못자고 계속 괴롭히는 실상을 모른다, 말해봤자 조치도 안해주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선임들이 후임 괴롭히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 훈련이 너무 많다.”

“제 성격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서 군대에서 생활하다보면 계속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하고 혼자 있을수가 없어 계속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겨서...”

“우울증, 정신장애, 정신과다니면서 자살 시도해서... 손목도 많이 아프고 약을 한꺼번에 복용한적도 있고... 자해하고 해서... 와서 바늘로 찌르거나 해서 부대에서 판단해서 오게 됨... 입대하기 전부터 민간에서 치료받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때까지 치료받았고.. 고등학교에서 자퇴하고 나서 치료받았음... 병무청에서 정신과적 이상 있다고 따로 말하지 않음.. 얘기 안해도 되는줄 알고 안함... 신병교육대에서는 자살이나 자해를 할 수 없는 도구를 모두 가져가서... 할 수 없음... 일층에 있으니까 뛰어내릴 수 없었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해를 하고 싶다.. 자해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지만 다시 또 받음.. 그때뿐인데... 그나마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단체생활을 해야하고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취침하고 밥먹고 이래야 하는게... 혼자만의 시간이 없으니까... 하

기 싫은 것도 몸에 힘이 없어 활동적인 것을 하기 싫으니까...훈련소에서는 스트레스 그대로 받고 있었음...”

“자살시도한 이유는 지금상태를 딱 잘라서 말하면 아무것도 하기싫고 죽는게 제일 좋을 것 같다...21살... 앞으로 살 시간이 많은데 그게 무서워 죽고 싶습니다.. 약간 자괴감이 들었음.. 내가 노력해야겠다했는데 저 혼자만 다른 동기들은 다 하는데... 거기서도 실망스러워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남들보다 못하고 하니깐... 뭘해도 안될것 같더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잡혔음... 훈련소가 거의 끝날때쯤에... 병무청에서 지능검사 84가 나왔음...계속 못하고 실수하고 하니깐 마음 한구석에 부정적인 생각 자리잡게 됨... 니가 뭘해도 되겠냐... 그냥 여기서 죽어라.. 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함. 동기가 되게 많은데... 4명중 버벅되는 아이는 한명도 없고 나만 버벅되고... 자대에서는 더 배워야 할 것이 많으니까... 어떤 것이 속내인지... 칼 쥐어주면 바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제 자신이 싫어했습니다. 실수한거에 대해 저 자신에 대해 힘들게 느껴지고 선임들도 너 동기들은 잘하는데 넌 왜그러냐.. 그래서 난 쓰레기다...솔직히 지금 제 상태로는 비전이나 그린캠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을 놔 버리는 느낌.. 가족이 아무래도 소중한쥬... 대학가서 취직 못하고 아무래도 가족에게 손벌리게 될 것이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될것인가...”

〈표 5〉 자대단계에서의 군부적응 병사의 식별, 관리, 운영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관리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 중대장, 소대장 - 주임 하사 - 군의관 - 교육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체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음 (막내에게 책임이 타고 내려오는 문제) - 상대적 대응 방법 미숙 - 상담관의 숫자 절대 부족 - 군의관은 신체적인 질병 예방교육만 실시 - 상담관 시간 부족으로 인한 깊이 있는 상담 힘들 - 대대 부조리 유발자 고발하고 캠프 입소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은 미비 - 이등병캠프(예하부대까지 실시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 교육 필요(특히 생활관장의 자질 향상, 위상 확립, 권위 신장) - 전문 상담관 수 확대(대대별 1인) - 병이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군대시스템 정착 - 개인 면담 시간 확대
스크리닝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병 1개월 스트레스, 우울, 불안 식별 - 정신과로 의뢰, 지휘관 재량으로 전역이나 전출 - 관찰: 혼자 지내는 병사,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병사 중심으로 식별 - 특별부대진단 - 자대에서 지휘관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들의 전문성, 식별 능력 부족 - 상담과 생활지도 구분 못함 - 간부의 상담 능력 부족 상담한다고 간부가 병사 붙잡고 있기도 함(문제만 노출, 해결해주는 못함) - 설문지 악용 사례(상호 불신) - 강제 입소하는 경우 분노 감정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 1명에 대한 프로파일화 - 간부들에 대한 상담에 대한 이해, 간부의식 구조 변화 교육 필요 - 설문 환경에 대한 비밀 보장 확보 - 교육을 통해 병사들이 설문을 악용하지 않도록 계도 - 입소시 선발 과정에 대한 불신 제거 필요
군부적응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문제, - 체력 부족 - 병영 악습(신병길들이기, 내리갈굼, 집단 따돌림) - 가정문제(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강요) - 막연한 입대 동기(멋지게 보여서, 해,공군 떨어져서) -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강요에 의한 입대 - 인격장애, 우울, 피해의식, 불안, 군 복무 기피 - 자기불만족 - 강한 해병대 이미지만 생각하다가 야간 근무하면서 현실을 인식-부적응 요소 촉발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혹행위나 구타 발생해도 실체가 드러나기 힘든 구조적 문제 - 악습의 악순환(고참이 되면 당연하게 생각) - 낙인이 찍히면 명예 회복 불가능 - 일부 선임들이 후임의 인권 유린 자행 - 지휘관, 영외근무자, 병사가 서로 다른 목소리 (찾은 보직 변경으로 병사들만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존재) - 군에 대한 부정적 생각(군 기피 또는 개인의 신체적 문제, 성격적 문제)과 조직의 문제 - 관심 보호병사일 때 간부가 처음에는 보호함, 선임들이 버리고 있다가 나중엔 갈굼(기수열외, 투명인간, 후임들에게 선임예우하지 못하게 함) - 간부들이 가해자 풀어주면 전역할 때까지 문제가 지속도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간부와 본인의 노력이 필요) - 명확한 가해자 처리 - 병사들 사이에서 상담에 대한 편견, 교육 필요 - 비밀보장 필요, 또래 상담병은 소문을 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음 - 병의 적성과 소질고려에 따른 배치가 중요 - 간부의 병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 - 자대 이전 단계에서 정밀한 진단 및 식별 필요

<p>군 부적응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의 어려움 - 이병 때 업무 과다로 인한 부적응 요소 발생 - 군 기피 - 개인적 성격 -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군의 인사배치제도 (예: 육지 근무 중 화생방 지원대 군무배치에 따른 불만) - 입대 전 왕따 경험 - 과거 자살 시도 경험 - 선 후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증 진단 받았으나 불이익 두려워서 정상인척 - PTSD 진단 받았으나 훈련소에서는 자대에서 심사 받도록 권유 - 업무지시 이해 못해 문제 발생(심리적 치료없이 혼나기만 하는 구조) - 입소 동안 증상 감소하나 자대 복귀전 불안 심함 - 진단 받았으나 부모님이 전역 거부 	
<p>운영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들과 같이 생활해도 병사들의 실생활 파악하기 힘들 - 이/일병 식당청소 시간 과다 - 평균 일일 3시간 소요 (휴식, 자기계발 시간 부족) - 과도한 청소 투입으로 자율시간 축소 - 시간이 있어도 자기계발/동아리 활동 못함 (선임 병 눈치) - 병장/상병: 대체로 자율 시간 보장 - 가해자를 바로 전출(예 전에는 피해자 전출, 계속 부대를 옮겨 다니는 문제 발생), - 소원 수리함 활용 - 간부는 문제가 있어도 상담 거부(장기 복무를 위해 문제를 은폐) - 7.4 사건 이후 인권, 병영문화 혁신에 관한 설문 수시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 일과표가 있어도 계급에 따라 체감 시간표가 다름 - 자기 계발, 동아리 활동도 선임 눈치 - 지휘관의 의지 문제 (전시 효과, 일과성) - 문제 발생하면 관련자만 처벌하고 종료되어 원인치료 하지 못함 - 과다한 행정업무(병사기록, 공문처리, 병역관리) - 빈번한 설문과 일방적인 평가 (기계적 답변) - 중간 위치에 있는 대대장의 딜레마: 과거에는 경직된 분위기(지휘체계에 대한 맹종) 현재 혁신병영문화 정책 시행하려고 노력 - 소속부대에 오점을 고려해 피의자에게 너무 관대 - 고발해도 피해자 신상이 드러나면 가해자와 똑같이 처벌받는 결과를 가져옴. -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타유발자라고 부르면서 당당히 구타하는 경우도 있음 - 피해자는 표정부터 우울해보이고 맞았다고 소문나면 주위에서 따돌림 당하는 이중피해로 고통 - 초급간부는 업무과중으로 귀찮아 함. 장교는 진지하게 들어주는 편 - 자신이 잘 할 수 없는 분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강제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관은 전방위주요, 직할대, 수색대 민간위촉상담관, 지휘관의 관심이 중요 - 군생활에 대한 정보, 자기문제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함을 홍보간부 집단상담 실시(열정, 꿈비전, 자기계발 내용 제시). - 상담관 처우 개선 - 군 실정에 맞는 리더십 교육 필요 - 상호적 평가 필요 - 병사들의 적응을 돕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서 개선이 요구됨. - 군대생활환경처우 개선 - 숙련자 부족한 합선근무의 현실에서 유인책이 필요 - 그린캠프 입소시 개인 의견 반영 - 선 후임간 의사소통 - 정신과 의료시설 및 전문적인 심리치료 - 동기가 중요하다고 함 - 마음의 편지 제대로 시행되기를 원함 - 간부 및 분대장 교육 필요 - 후임병과의 대화를 늘려야 한다. - 그린캠프 효과성에 대해 해당 부대의 관점 변화(부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p>운영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병사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관심병사로 지정되면 너무 많은 제약이 따름) - 관심병사의 의사는 중요치 않고 부대관리차원에서 간섭하거나 제약 - 소원수리함 효과가 없다고 생각 (병들사이에서 불신 만연) - 캠프에서 그냥 노는 것 같다 - 심리적 안정 - 식사, 영화, 휴연에 대한 만족 - 담배필때마다 분대장 밀착관리(심리적 압박감) -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끌려옴 - 전문성 부족으로 치료 목적이 아닌 쉬다가는 느낌 - 보직 변경했지만 사람만 바뀌고 그대로 이다 - 입원해서 진료 받아보고 싶다. - 낙인 효과와 본인 이미지 변신 힘들(군과 등지게 되는 요인) - 문제가 발생해야만 진출 허용 - 군대 약습, 내무부조리 이병의 경우 가장 심함 - 마음의 편지 쓴 사람만 따 당하는 분위기 - 진술서 쓰면 선임이 유리한 쪽으로 - 입소 병사 1명당 책임 간부와 동기가 동반 입소 (새로운 지휘 부담 유발) - 군 입대전 과장된 정보 접하고 피해의식을 가짐 -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움 요청도 못함) - 설문조사시 계급별로 하지만 보안 부실함(신상 털리면 꼬리표 달려 점점 더 가중되는 상황) - 동기 생활관 실시(악성 사고 예방에는 다소 도움이 되나 지휘통제 무시될 수 있음) - 병영 약습 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많으나 점점 은폐되는 현실 - 보고체계의 문제 (이병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병장으로부터 들음, 일 이병의 이야기는 무시됨) - 구티는 줄었으나 체력단련 명목으로 한계 상황까지 몰아 감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예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병영생활관(동기별)-음성적인 것 까지 막지 못함 *늘 푸른 보급자리 운동(선 후임 갈등 역할 극) 소원수리함(병사들은 어떻게든 발각된다고 생각, 실제 관리 부실 부대 있음) *또래 상담병(비밀 보장의 어려움) 설문지 수거(수거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은폐될 소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조사시 보안 철저(쓴 사람만 바보되는 현실) - 개인 정비 시간 보장 - 병사들에 대한 교육실시(도움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연락 창구 다양화) - 병영생활행동 강령에서 체력 고갈 금지 조항 필요 - 설문지 내용 은폐가능성에 대한 식별방법 다양화 필요 - 가혹행위자 색출하여 진출
------------------------	---	---

실시하여 군부적응 유형을 밝혀내고 이러한 군 부적응 유형을 어떻게 식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군복무 부적응을 만드는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상호작용에 대한 양상과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인 군복무부적응자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하다. 현재는 자살우려자, 우울증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 병사가 복무 중 어떤 사고나 사건을 발생시켰을 경우, 그 연관성에 대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관련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지휘관(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병사에 대한 군 복무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첨가하여, 어떤 성격적 특징과 유형이 어떤 사고와 주로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군생활부적응의 종류를 입대전개인환경요인(가정불화, 빈곤, 여자관계, 게임중독, 자살시도경험 등)과 부대내 요인(구타가혹행위, 왕따, 업무능력미달 등)으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군복무 부적응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요구된다. 관심병사로 분류되거나 비전캠프(내지 그린캠프)에 입소하게 되면 개인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은 물론이고 부대내 조직구성원이 암암리에 알게 되어 자대복귀 후에 복무적응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군복무부적응

과 관련하여 잘못된 병영문화를 보면 군복무 부적응자로 한번 낙인이 찍히면 조직 내에서 본인이 이미지를 개선하기가 힘들다는 무력감으로 인하여 적응력을 상실하고 스스로 현역복무에서 이탈하려는 심리적 자포자기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군복무부적응자로 선별된 자는 병영내에서 2차 피해자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더 이상 재회복하기 어려운 이른바 터널비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간부들은 부적응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부대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보다는 그린캠프 등 다른 제도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또한 소원수리제도나 관심병사제 실시시 처리 과정에서 철저한 비밀보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대배치 후 군복무 부적응으로 식별 및 캠프 입소시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 입소시키는 사례(무조건 싸인하라고 함)가 심층면접결과에서 나타난 바, 캠프 입소시 본인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강제 입소의 경우 분노감정이 폭발하고 교육에 대한 적절한 목표와 동기가 없으므로, 교육의 효과가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적응자의 적응유도 및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복무부적응자로 선별되어 캠프에 입소시 지휘관 또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통해 본인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군복무부적응에 대한 과학적인 식별과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적응자(또는 관심병사)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요구된다.

셋째, 관심병사 선정의 기준이나 부적응 병사에 대한 판단도구의 매뉴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대부터 전역 시까지 스트레스진

단검사, 신인성검사 등 개인의 성격과 기질에 관한 정보가 전산화되어 실질적으로 지휘관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인권 침해(간부에 의한 감시감독으로 개인사생활침해, 피병 등 군생활을 고의로 기피하는 자로 낙인, 상급자의 구타·가혹행위, 현역복무부적합심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부당한 대우 등)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부대관리제도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군복무부적응집단의 경우, 전우조 편성 67.8%, 소원수리제도의 경우 69.3%, 관심병사제 역시 71.5%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부적응 병사의 32.6%가 인권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고, 61.4%가 인권교육이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하는 등 각종제도의 개선과 병사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면접을 한 이병들은 “선임 때문에 잠 못 자고 계속 괴롭힌다”, “말해봤자 조치도 없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선임들은 후임 괴롭히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 “훈련이 너무 많다”, “일과 후 휴식시간에도 계속 일을 시킨다” 등 병영생활내 악습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지휘관의 부적응자 관리와 상담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일선부대의 지휘관이나 간부들이 부적응자를 조기에 식별해내는 능력과 이러한 자들의 심리적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다 체계화된 상담기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후임 갈등 시 간부들이 인지 못하거나 알아

도 개입 회피한다”, “중대장에게 보고해도 안이하게 일을 처리하고, 간부들도 실제 병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를 해도 그것도 못참냐는 식으로 반응한다”, “간부들은 병사들의 악습행위 실체를 모르고 외형적인 관리에 치중한다”고 하는 등 간부들의 관리와 상담능력에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부의 승진에 따른 교육시 상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시행되는 교육형태도 주입식, 암기식, 명령하달의 강의식 교육보다 체험활동, 상호교류, 시연·실습, 동영상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간부들에게 체득화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다.

여섯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대 배치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148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치는 사단급 부대에 1~2명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수적인 부족과 상담의 전문성의 한계로 인하여 현역병이 자신의 고민과 부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최소한 대대급 부대에 1명은 배치될 수 있도록 증원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채용 후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휴가, 외출외박시 SNS 등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상담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상담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 각 부대에 개인만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개인쉼터

혹은 자기계발실을 마련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시켜 정신적인 고충,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실의 환경적 여건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장병들이 상담을 통해 군 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고 군훈련도 몰입하도록 노력해줘야 할 것이다.

여덟째, 군, 관, 민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연계를 필요하다.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군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장병들의 복지와 복무 부적응자 관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군인권법의 제정과 군 기본계획에서의 식별 관리 및 인권에 관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군대 내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를 막고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권법을 제정하여 군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법적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군 기본계획에도 포함하여 올바른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시로 군의 인사와 회계까지 감시할 수 있는 국방감독관제도, 국방부나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 인권 문제를 상시로 감독하는 '군옴부즈만 제도'의 신설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 각각의 상황 원인 및 대안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후속연구의 과제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부대 내에 만연될 수 있는 상황이며, 언제든 군 적응에서 부적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수직적 구조, 보고 및 내림갈굼 문화, 통제와 지휘, 주입식 교육, 체력훈련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이에 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시행되어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기숙·정미경 (2009), “군병사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자살의도에 미치는 영향-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연구』, 1, 40, 453-483.
- 구승신 (2006), “신세대 병사의 정신건강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4, 64-93.
- 국군지휘통신사령부(2007), 『2007 군기강확립/사고예방활동계획』.
- 국방부 (2006), 『국방통계연보』.
- 국방부 (2007), 『육군보병학교 고등교육 군사반 상담기법 교재』.
- 김동연 (2009), “군생활 스트레스가 군인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 절망감, 삶의 이유,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근 (2007), “병사들의 군 적응 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1995), “사병의 군 조직 적응 촉진 방안: 군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안보학술론집』, 6(2), 321-437.
- 문봉진 (2005), “신세대 병사의 군 복무 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철 (2001), “군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형규 (2006), “군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한 신병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만길 · 송헌일 · 노규식 · 이경희 · 양지인 · 신동수 (2002), “군복무 부적응 환자의 입원빈도와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 『대한군진의학학술지』, 33(1), 72-81.
- 서선우 (2006), “군 복무 부적응자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혜석 (2008), “신세대 병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5), 109-131.
- 신웅섭 (1998), “군 복무 부적응자의 심리적 특성 분석”, 『육사논문집』, 54, 1-19.
- 신웅섭, 김용주, 고재원 (2007), “병사용 인터넷중독 경향성진단도구개발”, 『한국심리학회: 일반』, 26, 2. 307-328.
- 신웅섭 (2010),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연구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군인의 심리적 위기와 상담』(미간행).
- 안현의 · 최병순 (2006),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2007), 『2007년도 기본권전문상담위원 운영계획』, 대전: 육군인쇄창.
- 육군본부 (2007), 『사고분석(1996-2005)』.
- 육군본부 (2008), 『2008년도 사고예방활동지침』.
- 양창식 (2008), “군 복무 부적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윤형근 (2009), “적응장애로 진단된 군 병사들의 기질 성격 및 애착유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중훈 · 조주현(1999), “육군병사들의 복무기간에 따른 불안, 우울 및 충동성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8(5), 966-972.
- 이주실 (2006), “육군 자살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아심 (2008), “군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현역 육군병사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봉 (2007), “육군 신세대 병사 군 복무 동기부여 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란 (2008),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겨레21. 통권566호 2005-07-05, 18-20.
- 함봉진 (2007), “군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관례분석” 대통령소속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출일 : 2012. 10. 1

심사완료일 : 2012. 11. 10

Narrative research on types and actual management of maladjustment soldiers in deployment stage

Lee Jeung Won

Kim Yoon Na

Seoul Cyber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classify the types of military maladjustment upon soldiers who have been stationed to each unit and to find out how those types of maladjustment are identified and manage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held from June to July 2012 to different groups of soldiers, 31 soldiers from the army, 5 soldiers and 5 executives from the Marine Corps, 5 soldiers and 3 executives from the navy, 3 soldiers from the air force, special military counselors, surgeons and human resources officers.

The research was done with narrative analysis method to analyze both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hich make soldiers maladapted to cope in the military service, and discovered the different aspects of interactions and elements of human rights abuses.

Based on the result, the following researches are to be suggested: the need of constructing scientific management system for maladapted soldiers, thorough security on personal information, manuals for selecting 'soldiers with care' and maladapted soldiers,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reinforcement of the commander's counseling and management ability for maladapted soldiers, expansion of arrangement for special military counselors, improvement on physical environment, making close connections within military-government-private network, enactment of military human rights law and making new clauses on distinguish management in military general planning, thorough research on the cause and alternatives on each stage of maladaptation.

Key words : *military maladjustment, Focus group interviews, narrative analysis, vision camp, green camp, deployment stage*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개념구조*

권 금 주[†]

임 연 옥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시설경영학과 조교수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연구원

본 연구는 노인학대의 위험요인들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파악하여 개념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노인학대 77개 사례기록에서 학대 정황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요소들을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76개의 주제와 19개의 주제모음, 그리고 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3개의 범주는 '안정성', '강압성', '취약성'이며, 각 범주간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한 본질적 구조는 '3요인의 악순환'이었다. 즉, 노인학대 발생 및 안전의 위협이라는 사건 전후로 학대피해노인의 취약한 개인 및 환경 조건들이 존재하였고, 세 가지 범주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을 주는 유기체적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학대 발생 전, 후의 여러 정황들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살펴보아 위험요인을 추출함으로써 학대사례의 사정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판단 할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노인학대, 노인학대 위험요인, 질적 연구, 학대사례, 노인보호전문기관

* 본 논문은 2012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으로 연구한 '노인학대 사례 스크리닝 척도개발' 자료 및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음

† 교신저자: 권금주,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3-15,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시설경영학과, kkj@iscu.ac.kr

I. 서론

최근 사회적 주요 키워드인 ‘고령화’는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동시에 반면, 자연스럽게 노인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한다. 노인문제 중 노인학대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 가치관 및 노인부양 의식 변화, 사회적 자원 부족 등에 의해 발생하여(김미혜, 2004), 가족 내 폭력의 범위에서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합의되는 사회문제로 보고 있다(박봉길, 2000; Anetzberger, 1997).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 변화로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는 정부와 사회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정경희 외, 2007).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학대 개입을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발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율은 2005년 2,038건에서 2011년 3,441건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받고 개입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전국 17개소에서 운영되었는데 2012년 현재 1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2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재학대 발생과 원가정 회복 지원 도모에 목적을 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6개소까지 설치·운영되고 있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2).

노인학대의 원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선

행연구들은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노인의 경제 및 건강, 심리사회 기능 요인, 학대행위자 특성 요인, 가족상황 요인, 사회관계망 요인, 사회문화 요인 등 학대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개인 특성뿐 아니라, 넓게는 사회구조 측면까지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밝혀내고 있다(권중돈, 2004; 김미혜, 2004; 김태현, 한은주, 2000; 나용선, 2005; 서윤, 2000; 한동희, 1996; Christine & McDaniel, 1997; Pillemer, 1986; Woolf, 1998).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이나 유형 또는 판단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채 연구자의 임의적 기준으로 결과를 도출한 점, 연구물마다 영향요인이 상이하게 도출되는 점, 그리고 연구 대상이 노인학대를 대표할 표본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노인에게 국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노인학대 원인을 타당성 있게 설명하진 못하고 있다(권금주, 2007).

무엇보다도 노인학대는 일회적이고 즉흥적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된 가족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학대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간의 상호관계, 가족의 역사적 맥락, 그리고 가족성원 간 관계의 역동성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의 위험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을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가시적인 학대 현상과 함께 노인학대 발생 전과 후의 모든 정황들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실제 사례 기록을 질적 분석하여 노인학대의 위험성을 높이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

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궁극적으로 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심도 있고 타당한 이해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신고 접수된 학대사례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일관성 있게 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학대로 부터 벗어나는데 필요한 전략과 타당한 접근방법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노인 학대 사례의 효과적 개입을 증진함으로써 노인의 삶에 필요한 안전한 생활에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학대에 관한 제이론들

노인학대를 이해하는 이론들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배진희, 정미순, 2007). 사회학습이론은 어린 시절 폭력의 경험 및 관찰을 통해 습관화된 폭력행위는 다음 세대로 전이되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노부모를 학대한다고 본다. 즉, 폭력 행위는 문제해결의 수단이나 스트레스의 반응으로써 신체적 혹은 정서적 가해가 일상생활에 만연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그들이 성장해서 노부모 보호나 부양문제에 직면했을 때 폭력에 의존한다고 본다. 심리 병리적 이론은 학대행위자가 가진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노인학대를 이해하려는 관점이다. 즉 학대행위자의 정신 병리학적 측면에서 학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Wolf & Pillmer, 1989). 반면, 상황모델은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일차적인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의존성의 증대가 보호자에게 스트레스를 증대시켜 학대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부양 자체를 학대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가 함께 하는 관계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Phillips, 1986)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가족 내에서는 노인들의 가치는 저하되며 노인의 과거, 현재 이미지 사이의 부정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은 부양을 둘러싼 권력의 역동성(Power Dynamics)에서 학대의 원인을 찾고 있다. 이 이론은 상호성(Reciprocity)이라고 하는 규범이 붕괴될 때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사회구조적 모델은 거시적 입장에서 폭넓은 사회적 맥락으로 노인문제를 이해하려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 모델은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자연적 혹은 생물학적 노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역할이나 사회적 자원의 불공평성이 근본 원인이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노인학대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노인학대에 관한 여러 이론들은 서로 배타적이기 보다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학대 현상에서는 생태학적 접근 이론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 이론은 구체적인 위험 요인인 피해노인 특징, 학대행위자의 특징의 미시체계,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상호작용, 학대행위자의 중간체계, 피해노인의 중간체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체계 등이 상호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생태학적 접근은 기존의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통합적 시각에서 구축된 것이므로 다른 이론들이 갖지 못하는 포괄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고, 또 개인에서 가족 혹은 보다 더 큰 체계에 이르는 다양한 분석 단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노인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

노인학대가 왜 발생하는가? 의 질문과 관련하여 초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개인적 특징을 강조하였지만, 그 이후 노인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가족 간 관계 문제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진행 되었다. 예를 들면 노인이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갖게 되는 부양부담, 가족 내 갈등, 의존적 피해노인과 스트레스가 높은 부양자 간의 관계의 질이 학대 위험요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1990년 후반에 들어와서는 개인, 가족,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이론 및 모델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는 1990년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외국 연구들의 영향을 받아 초기부터 위험요인을 단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다는데 동의를 하였다(권중돈, 2004; 김현주, 2007; 서운, 2000; 정호영, 노승현, 2007; 한은주, 2000). 한 예로 권중돈(2004)은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 가족상황적 요인(동거부양 여부, 부양자의 특성 변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양자의 성격,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 변인: 자녀와의 접촉량, 감정대립, 밀착정도, 지지도), 사회관계망 요인(노인과 부양자의 고립, 노인의 비

공식적 관계망),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적 서비스 체계의 인지 및 이용, 노인차별주의, 가족주의)으로 정리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기록을 중심으로 노인학대와 관련된 여러 위험요인들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에 소재하는 A노인보호전문기관 2011년 학대사례 기록 66사례와 2011년 노인학대 우수사례집에서 11개 사례, 총 77개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학대 정황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2011년 노인학대 우수사례집에서 11개 사례를 제외¹⁾한 A노인보호전문기관 66개 사례를 중심으로 기본정보를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의 성별은 남 22명(33.3%), 여 44명(66.7%)으로 여자가 약 2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은 70~79세(36.4%), 80~89세 (37.8%)가 대다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과반수(38명, 57.6%)를 넘었고 결혼상태도 사별 또는 배우자 없음이 66.7%를 차지하였다. 생활 상태는 일반과 저소득 이하 및 소득 없는 경우가 반반이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과 나쁨이 27명(40.9%)이며, 가구형태는 자녀 또는 손자녀 등과 거주하는 경우가 47.0%, 직업은 무직

1) 기본정보 분석에서 11개 사례를 제외한 것은 11개 사례는 우수사례집이라 기본정보 및 학대유형의 구체적 행위 등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 학대피해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 22명(33.3%), 여 44명(66.7%)
연령	60~69세 13명(19.7%), 70~79세 24명(36.4%), 80~89세 25명(37.8%), 90세 이상 4명(6.1%)
교육수준	무학 8명(12.1%), 초졸 30명(45.5%), 중졸 12명(18.2%), 고졸 6명(9.1%), 대졸 이상 5명(7.6%), 무응답 1명(1.5%)
결혼상태	혼인유지 20명(30.3%), 사별 33명(50.0%), 배우자 없음(이혼, 별거, 가출 등) 11명(16.7%), 미혼 2명(3.0%)
생활상태	일반 34명(51.5%), 저소득 12명(18.2%), 수급자 10명(15.2%), 소득 없음 7명(10.6%), 1명(1.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9명(13.6%), 나쁨 18명(27.3%), 보통 24명(36.4%), 건강함 9명(13.6%), 매우 건강함 2명(3.0%), 무응답 1명(1.5%)
가구형태	노인단독 13명(19.7%), 노인부부 13명(19.7%), 자녀동거 18명(27.3%), 자녀, 손자녀와 동거 13명(19.7%), 시설 1명(1.5%), 기타 8명(12.1%)
직업	무직 59명(89.4%), 직업 있음 5명(7.6%) 무응답 2명(3.0%)

이 대부분(89.4%)이었다(〈표 1〉 참조).

피해노인의 학대유형 및 구체적 학대행위 경험 현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적 학대 중에서는 ‘폭행한다’ (30.3%),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헐박하거나 위협한다’ (30.3%)이며, 정서적 학대는 ‘노인을 위협, 헐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는 행동을 한다’ (60.6%), ‘노인과의 접촉을 피한다’ (28.8%),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16.7%)로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경험이 낮은 편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30.3%),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24.2%)이다. 유기와 성학대의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주제별로 내용을 약호화한다든지 전체적인 흐름이나 성분을 분석하는 과정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경호, 2003).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자료 분석과정은 전체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을 위해 연합한 자료들로부터 주제들이나 범주들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공통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은 수집된 자료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진술하는데 부합하는 질적 연구 분석방법이다(김미혜 외, 2004). 분석절차는 먼저, 연구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표 2〉 피해노인의 학대행위 경험 현황(복수응답)

학대유형	구체적 학대 행위	명(%)
신체적 학대	폭행한다.	20(30.3)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적으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5(7.6)
	노인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억압한다.	7(10.6)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20(30.3)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7(10.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1(1.5)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3(4.5)
정서적 학대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는 행동을 한다.	40(60.6)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1(1.5)
	노인과의 접촉을 피한다.	19(28.8)
	노인의 사회적 관계유지를 방해한다.	4(6.1)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11(16.7)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2(3.0)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5(7.6)
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20(30.3)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16(24.2)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5(7.6)
유기	의존적 노인을 유기한다.	-
성적 학대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4(6.1)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며, 2단계에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제외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 진술한다. 3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며,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들로부터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 clusters), 범주로 구성한다. 5단계는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히 기술하고 6단계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기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록 원자료를 반복적으

로 읽으면서 노인학대 발생 정황과 관련되어 의미를 가지는 말이나 문장을 찾아내어 이를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는 개념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원자료에서 얻어진 개념을 비교, 질문하기, 원자료 재검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념 간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된 속성과 관계를 반복 검토하면서 주제와 주제모음, 그리고 범주로 구성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분석에서 도출된 각 범주들을 전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연결되는지 그 관계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분석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다시 연구대상자 원자료와 연구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결과 최종적으로 185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이 의미들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고, 다시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하여 76개의 주제와 19개의 주제모음, 그리고 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표 3> 참조).

IV. 연구결과

노인학대로 신고된 77사례 기록을 분석한

<표 3>에서 제시된 것처럼 노인학대 위험요

<표 3> 노인학대 위험요인의 범주(계속)

범주	주제모음	주제
안전성	즉각적인 의료조치 또는 분리보호 필요함	현재 외상과 호흡곤란, 활력증후 이상, 탈수, 영양실조 등으로 즉각적 의료 조치 필요/ 의식저하, 의식혼돈, 혼수상태 등으로 즉각적 병원 이송 필요/ 자살시도로 즉각적 위기개입 필요/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병원 이송 또는 즉각적 분리보호가 필요
	학대로부터 피신 중임	집(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시설) 앞 또는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음/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있음/ 이웃집 또는 찜질방, 여관 등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음/ 다른 자녀 또는 지인 집에서 기거함/ 경찰, 복지기관, 쉼터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 피신해야 할 상황임에도 집(시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행위자를 두려워함	노인이 눈치를 보며 주눅들어있음/ 노인이 불안하고 초조해함/ 행위자를 무서워하고 기피함/ 신고 사실이 행위자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함 / 행위자로부터 벗어나길 희망함(타자녀의 보호, 또는 주거분리, 일시보호 및 시설보호 등).
	학대로 판정할 근거 존재함	학대를 입증할 사진, 녹음, 진단서 등의 증거가 있음/ 현재 학대가 발생하고 있거나 경찰이 출동해 있음/ 재접수 된 사례임/ 학대가 1년 이상 지속됨/ 신고의무자 및 공적기간 또는 이웃 등 제삼자가 신고함
	노인이 방치되어 있음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식사를 챙겨주지 않음/ 노인에게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함/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주지 않음/ 노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목욕, 위생처리, 기본 의료처치 등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함/ 보호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및 요양보호서비스 이용, 의료적 처치 및 입원, 요양시설입소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함
강압성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줌	노인에게 망신을 주고 비아냥거림/ 노인에게 고함, 욕설, 폭언을 함/ 노인을 무시하고 냉담하게 대함/ 노인과의 접촉 또는 대면을 피함
	노인에게 위협을 함	완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으로 위협함/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함
	노인에게 폭력을 가함	노인을 폭행함/ 노인의 신체 일부를 억제하거나 감금함/ 약물을 사용하여 신체를 구속하거나 통제함/ 신체적 상해 흔적이 있음/ 강제노동을 시킴

〈표 3〉 노인학대 위험요인의 범주(계속)

범주	주제모음	주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함/ 노인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가함/ 성폭력으로 인한 손상 흔적이 있음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힘.	노인의 연금, 생계급여 등을 가로챌/ 노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돌려주지 않음/ 노인의 돈 또는 재산 사용을 통제함/ 노인의 명의를 도용함
	노인이 신체적으로 취약함	노인이 신체적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일상생활수행에 부분 또는 완전 도움이 필요함
	노인이 정신적으로 취약함	치매 진단 또는 치매가 의심됨/ 우울증 진단 또는 우울증이 의심됨/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가 있음/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함
	노인의 모습이나 생활환경이 불결함	노인의 차림새가 불결하고 부적절함/ 노인에게 악취가 남/ 집(시설)이 지저분하고 불결함/ 집(시설)에 수도, 전기, 전화 등이 단절됨/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위험에 노출됨/ 콘테이너, 쪽방 등 부적절한 거처에서 생활함
취약성	노인이 학대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지 없음	노인이 학대 사실을 부인함/ 노인이 개입에 대해 저항하거나 회의적임/ 노인이 학대 상황의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고, 자포자기 상태임/ 노인이 음식물 섭취, 약물 복용, 자기생활 관리를 거부함/ 노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및 요양보호서비스 이용, 의료적 처치 및 입원, 요양 시설입소 등을 거부함
	행위자가 정신적으로 취약함	알코올의존(중독) 또는 약물의존(중독)이 의심됨/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함/ 부정적인 생활 사건으로 삶에 대한 절망감, 원망, 열등감, 피해의식 등이 강함/ 자립적인 삶에 대한 행위자의 의지나 노력이 매우 부족함.
	행위자가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음	어린 시절부터 비행, 폭력 경력이 있음/ 성격과 행동이 난폭함/ 노인 외에 가족을 폭력한 경험 있음/ 범죄로 경찰이 출동하거나 형사처벌 경력 있음
	가족 갈등 지속되어 있음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 간의 심각한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됨/ 노인의 성격과 언행이 가족원들에게 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갖게 했음/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을 경찰,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신고하는 등 외부 개입 있었음
	가족과 단절되어 있음	가족원들의 연락과 왕래가 거의 없음/ 가족원들과 연락과 왕래가 두절되었음/ 노인이 가족원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못 받고 있음/ 노인 스스로 가족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

인의 개념구조는 ‘안정성’, ‘강압성’, ‘취약성’, 등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분석 결과를 통해 각 범주간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한 본질적 구조는 ‘3요인의 악순환’이다. 피해노인들에게는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성적 학대가 발생한 사건 전후로 취약한 개인 및 환경 조건과 노인의 안전이 위협 당하는 상황 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범주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을 주는 유기체적 순환 구조를 가지며 노인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게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 실천현장에서는 사례 개입 초기에 ‘강압성’이라는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만만 관심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 노인의 ‘안정성’과 노인과 노인을 둘러싼 환경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각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면 악순환적 구조를 생성하고 있는지를 사정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3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노인학대 상황에서 구체적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안전성

학대가 발생한 시점에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할 부분은 피해노인의 안전이다. 피해노인이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생명뿐 아니라, 신체 및 정서적 적 안정, 그리고 노인의 돌봄과 환경의 안전까지를 의미한다. 즉, 피해노인은 학대발생 상황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안전을 위협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안전성’ 범주 내에서 파악해야 할 세부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즉각적인 의료조치 또는 분리보호 필요함

노인학대 사례를 접수 받으면 폭력으로 인해 골절, 상해, 파열 등의 외상뿐 아니라, 외상은 없지만 통증을 호소하거나 탈수 증상이 심한지, 또는 의식 혼돈 또는 불명으로 즉각적인 응급 및 의료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노인 스스로 자살시도를 하거나, 치매 및 정신질환 등으로 병원이송 또는 즉각적 분리보호가 요구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는 생명 위협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요인보다도 가장 먼저 파악해서 즉각적인 조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피해노인 간수치가 높아 의식이 없어 의사소통이 힘들다. (사례 5)

머느리가 때리고 고함을 치는데 노인의 다리 통증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발이 썩어 들어가는 할머니를 경제적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사례 75)

2) 학대로부터 피신 중임

학대의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은 혼자서 학대에 대응할 능력이 없으면 피신하여 일시적으로 학대로부터 회피하려는 행동을 한다. 집 주변에서 서성거리거나, 길거리를 배회하기도 하고, 이웃집에 일시적으로 머물거나 다른 자녀의 집으로 피신을 가기도 한다. 비공식적 자원이 없는 경우는 경찰 등의 도움으로 일시 쉼터 등의 보호를 희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피신할 마음은 있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 피신 상태

로 사정되어야 한다.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폭언을 하였으며 학대를 피해 노인은 주로 담벼락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사례 39)

아들이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짬질방이나 근처에서 밤을 새 곤하며, 지금 아들이 찾아와서 피해노인은 밖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이다. (사례 19)

3) 행위자를 두려워함

학대피해노인의 대표적 행태 중 하나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등으로 주눅 들어 있거나 위축된 모습이다. 그 이유는 바로 행위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언제 학대가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불허 상태는 피해노인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두려워하기에 충분하다. 그 두려움은 학대가 외부로 노출되면 학대행위자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피해노인은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학대를 벗어나고 싶은 희망을 숨기고 학대행위자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할 뿐이다.

피해노인이 3일 만에 의식이 깨어났으나 아들(학대행위자)이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떨고 있다. (사례 31)

딸(학대행위자)이 배우자 사별 한 후, 2년 전부터 동거하였는데 피해노인은 정신질환 딸이 두려워하고 못살겠다고 한다. (사례 40)

4) 학대로 판정할 근거가 존재함

노인학대 사례는 학대로 판정할 근거를 찾는 것이 힘들어 심증으로만 학대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대라는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 이들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학대를 입증할 증거물, 학대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 사례가 재 접수된 경우이거나 학대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학대를 목격한 제삼자의 진술은 학대로의 판정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소이다.

아들이 술을 마시고 칼을 들고 협박을 하여 112에 신고하여 경찰과 친구가 찾아왔었으며, 한 달간 친구의 집에서 기거하였다. (사례 16)

2007년 1차 신고 접수되었으나 피해노인이 상담자체를 거부하여 종결되었는데 재 접수된 사례여서 재학대의 가능성이 있다. (사례 72)

5) 노인이 방치되어 있음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성과 관련한 위험요인 중 하나는 돌봄이 요구되는 노인을 방치된 상태에서 고립시키는 것이다. 방치는 단지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하는 문제만 아니라 생활비, 위생처리, 기본적인 의료처치 등이 부족하거나 부질적인 상태, 더 나아가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상황까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요소들로 인해 노인은 안전성이 위협을 받는 방치상태에 놓여 버릴 수 있기에 노인이 어떤 환경과 돌봄이 제공되는지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식사 제대로 못해 영양상태가 엉망이다. (사례66)

아들이 피해노인에게 밥을 해주지 않고 목욕도 시켜주지 않으며 항문 주머니도 갈아주지 않고 있다. (사례 32)

6) 노인이 버려져 있음

스스로 집을 찾아가거나 안전한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는 노인을 유기한다는 것은 이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요인이다. 노인이 버려진다는 것은 단지 낯선 장소에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노인을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는 노인의 심리 정서적 유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또한 안전성에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노인을 무시하고 짐을 싸서 내보낸다. (사례 28)

치매가 심한 노인이 비오는 날 옷을 벗고 마을을 배회하고 있다. (사례 73)

2. 강압성

‘안전성’은 학대피해노인 개인 및 환경의 위험요인 평가였다면, ‘강압성’은 피해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실제적 압박 행위 및 착취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강압성’의 유형 및 심각성 수준에 따라 피해노인은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호 악순환적 구조로 전개되기에 ‘강압성’의 위험요인들을 평가하고 그 심각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강압성’과 관련하여 파악해야 할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줌

선행연구에서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심각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데(이연호, 2002;

고보선, 2005), 예를 들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90%가 ‘기분이 나빴다’, ‘우울했다.’, ‘외로웠다.’, ‘서럽고 슬펐다.’ 등의 부정적 감정을 보여주었다(보건복지부, 2005). 이와 같은 정서적 고통은 단순히 정서적 학대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다른 유형의 학대에 따른 정서적 피해로써 2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서적 고통은 학대상황에서 광범위하게 겪는 피해이며, 외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정도와 심각성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행위자 연이은 사업실패로 피해노인과 동거하면서 술 먹고 노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다. (사례 64)

피해노인에게 샷대질을 하고 화를 내며 노인 치매라고 치부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학대를 한다. (사례 31)

2) 노인에게 위협을 함

노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직접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피해노인이 받는 압박의 정도는 매우 강하다. 특히, 단순히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함이나 욕설과 함께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완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협적 행위가 나타났는지 필히 파악해야 한다.

학대행위자 알콜 문제가 있으며 피해노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 행동을 한다. (사례 56)

다 죽여 버린다. 등의 협박과 욕설을 하고 집에 있는 화분을 던지고 깨뜨렸다.(사례 19)

3) 노인에게 폭력을 가함

노인학대가 사회적 관심을 갖게 한 가장 대표적 학대유형이 ‘매 맞는 노인’이었다. 즉, 노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노인의 신체를 억제하고 감금하는 행위, 약물을 사용하여 신체를 구속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강제노동을 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대행위자인 남편이 의치증이 심함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여 폭력으로 현재 머리를 많이 다친 상황이다. (사례 21)
얼차레 등을 시키며 행위자의 말에 복종하도록 구타와 욕설을 해왔으며 행위자가 그만두라고 얘기할 때까지 일을 하는 등 강제노동을 시켜왔다. (사례 69)

4)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함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수적으로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피해 당사자 노인이 한 인간으로서 받는 충격과 상처는 그 누구에 못지 않을 것이다.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는 노인 또한 성별에 따른 성 인지와 존중이 필요하다 는 기본 인권 자체를 침범하는 행위이므로 위험요인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술을 마시고 피해노인 목을 조르며 언제 죽을 거냐고 폭언을 하고 노인의 가슴을 만지는 성희롱을 하였다. (사례 23)
피해노인이가 길거리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길거리에서 피해노인 바지를 내리며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고 했다. (사례 30)

5)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의 연금, 생계급여 등을 가로채거나 노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만이 아니라, 노인의 돈 또는 재산 사용을 통제하고 노인 명의를 도용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또한 그 심각성과 피해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노인의 금전과 재산을 착취 또는 도용하는 행위는 단지 경제적 손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 정서적 피해 등도 동반하며 건강을 해치는 등의 신체적 피해 및 삶에 대한 회의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장남(학대행위자)이 피해노인 명의의 집을 빼앗고 빨래를 같은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혼자 차려 드시게 할 뿐 아니라, 최근 급성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행위자는 의사에게 산소호흡기 등의 의료적 조치를 못하게 하고 피해노인에 관한 사항은 차남에게 부양권 있다면 차남과 의논하라고 한다. (사례 7)
재산을 준 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과 눈도 안 맞추고 갈등이 있으며 머느리기 뒤에서 조종하는 듯 하다고 한다. (사례 58)

3. 취약성

피해노인이 자유의지에 반하여 실제적 압박 행위 및 착취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노인의 생명뿐 아니라, 신체 및 정서적 안정, 그리고 노인의 돌봄과 환경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또 다른 구조는 노인 및 학대행위자, 그리고 가족관계의 취약성이다.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상태를 갖는데 있어 학대 피해노인 및 행위자

의 자원과 능력, 그리고 가족의 지원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학대 사례는 많은 경우 노인 및 학대행위자, 그리고 가족관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강압적인 학대를 벗어나 안전한 상태를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노인학대 위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이 요소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1) 노인이 신체적으로 취약함

노인이 신체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일부 또는 완전하게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초기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의 신체적 의존성’이라는 개념으로 강조되어 왔다. 신체적 의존 상태가 곧 노인학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학대관련 위험요인에 노인의 신체적 취약성 요인까지 더하게 되면 심각한 학대로 진전될 수 있기에 노인이 신체적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일상생활수행에 부분 또는 완전 도움이 필요한지 평가해야 한다.

피해노인은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귀가 안 들리고 말쑤도 잘 못한다. 영양실조로 보이고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데 학대행위자 아들이 모든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 (사례 26)
 피해노인 와상상태에서 욕창이 심하다. (사례 65)

2) 노인이 정신적으로 취약함

학대피해노인이 치매를 진단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면 학대를 당하여도 스스로 학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사례 신고 시 주의

를 기울여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울증을 진단받았거나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능력이 없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노인의 정신적 취약함도 점검해야 한다.

피해노인 완고한 성격이며 자녀들 피해노인과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시설에서 잦은 가출과 폭력을 행하였다. (사례 35)
 피해노인이 치매라고 치부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학대를 하고 샷대질을 하고 화를 낸다. (사례 30)

3) 노인의 모습이나 생활환경이 불결함

노인의 신체 및 정신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노인의 모습이나 생활환경의 불결은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정황으로써 눈여겨보아야 할 요소이다. 노인의 차림새가 불결하고 부적절한 경우, 노인에게 악취가 나는 경우, 집(시설)이 지저분하고 불결한 경우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피해노인의 집(시설)에 수도, 전기, 전화 등이 단절되거나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콘테이너, 쪽방 등 부적절한 거처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노인의 모습이나 생활환경이 불결한 경우는 방임으로 학대유형이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대 여부를 평가하는 주요 위험요인이 된다.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으로 대소변 등이 방안에 방치되어 있으며 남은 음식물이 썩어 파리 등이 꼬여 있었다. (사례 68)

집은 좋은데 피해노인 골방에 방치한다고 하며 노인은 형색 남루하고 악취 나고 침을 흘리는 등 불결한 상태이다, (사례 51)

4) 노인이 학대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지 없음

학대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인이 학대 상황을 부인하며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노인이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노인 스스로 개입에 대해 저항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대를 노출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장기간 학대 상황에 노출되어 노인 스스로 학대상황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된 경우도 있다. 즉 노인이 학대 상황을 해결하거나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거나, 노인이 음식물 섭취, 약물 복용, 자기생활 관리를 거부하거나 또는 노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및 요양보호서비스 이용, 의료적 처치 및 입원, 요양시설입소 등을 거부하는 자기방임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

무허가 집에서 거주하며 전기, 전화, 수도 등의 지원이 안 되고 벽지, 장판이 없는 상태, 콘크리트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이 시장에서 구걸하며 끼니를 해결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제시한 서비스를 모두 거부하고 있고 7개월 전부터 다른 거주지로 이전을 권유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다. (사례 73)

5) 행위자가 정신적으로 취약함

행위자가 학대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

는 정신적 취약성은 위험요인으로 주목해서 점검해야 한다, 알콜의존(중독)과 폭력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 우울증 등으로 학대행위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사업실패, 무직, 이혼, 차별 양육 등의 부정적인 생활 사건으로 삶에 대한 절망감, 원망, 열등감, 피해의식 등이 강한 경우 자신보다 약한 피해노인에게 그 원인을 돌리며 언어적, 비언어적 학대를 가하기도 한다. 또한 노인의 의존성처럼 학대행위자가 자립적인 삶에 대한 행위자의 의지나 노력이 매우 부족하여 피해노인에게 의존하면 살면서 강압된 힘과 통제를 이용하여 학대를 행하기도 한다.

행위자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피해노인에게 괜히 시비를 붙여 폭행을 하고 다짜고짜 욕설, 물건던짐,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싸움이 일어났다. (사례22)

행위자가 술을 자주 마시며 거주지 주변에서 소리를 마구 지르고 옷을 벗는 행동을 한다. (사례 3)

6) 행위자가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음

학대행위자의 폭력성은 피해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관계나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즉 삶의 여러 영역에서 폭력성향을 보인 행위자는 노인학대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부터 비행이나 폭력의 경력이 있거나, 성격과 행동이 난폭한 경우, 노인 외에도 가족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을 가진 경우, 범죄로 경찰이 출동하거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경우 등을 위험요인으로 점검해야 한다.

폭력이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행위자는 정신질환이 의심된다. 구청의 사례관리로 진행 중인데 피해노인이 행위자를 무서워 해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례 21)

어린시절부터 본드흡인, 물건 훔치고 칼로 타인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생활 지속 못하고 있다. (사례 53)

7) 가족 갈등 지속되어 있음

박봉길(2005)은 가족갈등을 매개로 하여 노인의 학대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가족갈등이 노인학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라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학대 사례 접근에서 가족관계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즉, 노인이 가족 또는 부양자와 함께 했던 시간 동안 경험한 관계의 질이 노인학대까지 가게 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권금주, 2008). 따라서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 간의 심각한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노인의 성격과 언행이 가족원들에게 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갖게 한 경우, 경찰, 가정폭력상담소에 신고하는 등 외부 개입이 있을 정도로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경우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국인 며느리와 작은 갈등과 말다툼이 계속되었고 며느리는 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 (사례 46)

89세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인 아들 간에 모자관계가 좋지 않았다. 아들이 모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례 10)

8) 가족과 단절되어 있음

노인학대 사례에서 가족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 갈등이 누적되면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피해노인을 도울 가족지원 체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피해노인은 가족 보호망이 하나도 없이 학대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진다. 더욱이 이러한 가족과의 단절 상황에 피해노인의 취약성과 행위자의 취약성 등도 더해진다면 위험요인 간 악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원들의 연락과 왕래가 거의 없는지, 또는 두절되었는지, 노인이 가족원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못 받고 있는지, 노인 스스로 가족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신고자가 피해노인이 치매임을 확인하고 혼자 거주하는 것이 힘들음 가족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가족이 방관하였다. 피해노인은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온 상황이다. (사례 12)

피해노인은 과거부터 알콜문제로 가족갈등이 있었으며 과거 가족부양 의무 소홀 등으로 딸과 단절되어 살아 왔다. 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연락했지만 욕설과 경제적 요청에 대한 거부뿐이었다. (사례 36)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목적은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받아 학대 정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학대를 판정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등 학대사례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기록을 중심으로 질적분석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와 관련된 여러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위험요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A노인보호전문기관 2011년 학대사례 기록 66사례와 2011년 노인학대 우수사례집에서 11개 사례 총 77개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학대 정황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요소들을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에 입각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6개의 주제와 19개의 주제모음, 그리고 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학대 위험요인의 개념 구조인 '안전성', '강압성', '취약성'의 각 범주간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한 본질적 구조는 '3요인의 악순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관한 제이론들에서 말하는 어떤 한 요인이나 현상이 노인학대를 발생한다는 주장보다는 피해노인들에게는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성적 학대가 발생한 사건(강압성) 전후로 취약한 개인 및 환경 조건들(취약성)과 노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안전성) 등이 존재하며, 이 세 가지 범주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을 주는 유기체적 악순환 구조를 생성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학대 위험요인 및 개념구조에 대해 요약하고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는 '안전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생명뿐 아니라, 신체 및 정서적 안정, 그리고 노인의 돌봄과 환경의 안전까지 보호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즉 학대사례가 접수되었을 때, 피해노인에게 즉각적인 의료치료 또는 분리보호가 필요한지, 학대로부터 피신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지,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학대로 판정할 근거의 가능

성은 충분한지, 노인이 방치되거나 버려져 위험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스크리닝하여 피해노인의 심신 및 환경의 안전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범주인 '강압성'은 피해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실제적 압박 행위 및 착취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학대유형 중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범주에서는 어떤 학대행위가 발생하였으며 학대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는지 스크리닝하여 학대위험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셋째 범주는 '취약성'으로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그리고 가족관계의 취약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학대 피해노인 및 행위자의 자원과 능력, 그리고 가족의 지원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것이 취약할수록 학대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신에게 적절한 원조자로 판단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족, 특히 배우자와 자녀이고, 그 뒤를 이어 친척과 친구, 이웃, 그리고 마지막에 공식적 조직의 순서로 서열화 된다는 Cantor(1979)의 위계적 보완모델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학대에서도 피해노인이나 행위자 모두가 지지체계 선택 과정이 위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권금주, 2007). 따라서 가족과의 갈등과 단절은 피해노인이나 행위자가 가장 선호하는 가족 지원체계가 소멸된 상태를 의미하기에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그리고 가족지원체계의 취약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스크리닝하는 것은 중요한 평가과정일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노인학대 위험요인을 설정하여 조사분석한 양적연구와 달리 노인학대가 발생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발생 전, 후의 여

리 정황들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살펴보아 위험요인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학대 원인에 대한 심도 있고 타당한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혀낸 위험요인은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가족, 그리고 환경에 따른 요인들의 나열에 국한되어 있다면 본 연구에서 밝혀낸 위험요인들은 노인학대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구조 및 심각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평가된 요인들의 조합을 통해 노인학대의 전개과정 또한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둘째, 신고 접수된 학대사례의 사정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일관성 있게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즉, 본 연구에서 밝혀낸 위험요인들을 실제 사례접수 때 적용하여 활용한다면 사례별로 체크된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빠르게 사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모든 상담원이 일관성 있는 판단자료를 근거로 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사례판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 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양적 수치화를 확보한다면 학대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하는 등, 노인학대 실천 현장에서 실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학대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 및 학대 판정 지표로서, 노인학대 실천 현장에서 실용화가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학대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타당한 접근방법 및 해결방안 제시도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적용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된 항목의 조합에 따른 학대 전략체계를 모형화하는 것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질적 연구의 특성상 노인학대의 위험요인과 이들의 개념구조를 제시하였을 뿐 심각성이나 강도 등을 수치로 설명하는 양적조사가 병행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적으로 본 연구의 개념구조를 양적조사로 변환하여 노인학대 위험정도 스크리닝 해보는 척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추가연구가 후속으로 이뤄진다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미래사회에서 노인의 삶에 기본적인 안정성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므로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금주 (2007).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 가해
며느리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중돈 (2004).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19.
-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79-95.
- 김미혜, 권금주 (2008). 며느리에 의한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3), 403-424.
- 김태현, 한은주 (2000). 노인학대의 생태학적 연구, 한국노년학, 20(2), 71-89.
- 김현주 (2007). 노인학대의 위험요인 사정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7, 67-87.

- 나용선 (2005). 노인학대 개입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노인학대 가해 및 피해상황 관련요인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봉길 (2000). 노인학대 인식도 분석을 통한 사회사업 원조전략.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5). 가족갈등을 매개로 한 노인학대의 경험에 대한 노인학대인식과 가족지원의 인과관계 분석, 노인복지연구, 28, 403-428.
- 배진희, 정미순 (2007). 노인학대 영향 요인의 성별 비교 연구, 노인복지연구, 36, 35-61.
- 서윤 (2000).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적실태에 관한 복지 연구, 한국노인복지, 7, 21-71
- 정경희, 오영희, 이소정, 권금주, 이윤경, 방효정 (2007).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 판정 지표 개발 및 사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호영, 노승현 (2007). 노인학대의 위험요인 및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7, 181-202.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2). 201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최경호 (2003). 질적연구에 대한 이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5(4), 877-888.
- 한동희 (1996).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 카톨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netzberger, G. J. (1997). Elderly Adult Survivors of Family Violence :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Violence against women, *Thousand Oaks, Oct, 3*, 499-514.
- Cantor, M, H (1979). Neighbors and friends: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1*: 434-463.
- Phillips, R. (1986). Theoretical Explanations of Elder Abuse: Competing Hypotheses and Unresolved Issue. In *Elder Abuse Conflict in the Family*. Edited by Karl A. Pillemer and Rosalie S. Wolf. Dover, Massachusetts: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197-217
- Pillemer, K. A. (1986). Risk Factors in Elder Abuse: Results from A Case-control Study. In *Elder Abuse Conflict in the Family*. Edited by Karl A. Pillemer and Rosalie S. Wolf. Dover, Massachusetts: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239-265
- Wolf, R., & Pillmer, K. A. (1989). *Helping elderly victim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제출일 : 2012. 10. 1
 심사완료일 : 2012. 11. 10

The Study on Elder Abuse Risk Indicators and Concept Structures

Kwon, Kum Ju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Seoul Cyber University

Lim, Yeon Ok

Research Associate,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Agi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and to systematize the elder abuse risk indicators and concepts structure in Korea. Using Colaizz, one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77 elder abuse cases were analysed, and the data was classified 76 themes, 19 theme clusters, and 3 categories. Three categories were 'safety', 'intimidation', and 'vulnerability'. Also, the essential structure was 'the vicious circle between three categories'. Before and after the emotional, physical, financial and sexual abuse was occurred, victims of elder abuse had the personal vulnerabilities and they were in the vulnerable circumstances. Indeed, there were no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ree categories, but the vicious cycle of mutual influ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shows the risk indicators which can consider the various contexts before and after elder abuse accidents. Also,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fficient and valid screening tool using at intake stage can be suggested. Lastly, the strategies to protect and escape from the abuse can be presented.

Key words : *elder abuse, elder abuse risk indicators, qualitative research, abuse case, elder protection agency*

도시빈민은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지역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이 은 주[†]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도시빈민이 지역적으로 고립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 한 곳을 사례로 주민 14명과 심층면접, 주민들과 환경에 대한 관찰, 그리고 주민자치조직 운영자들, 사회복지사, 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참여자들은 두 가지를 경우를 통해 지역 사회 및 주류사회와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었다. 하나는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일을 통해 서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의 종교기관 출석, 봉사활동, 그리고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유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의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 사회에서 품어줌, □ 봉사로 되갚음, □ 인정받음, □ 같이 할 수 있음이라는 네 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자료분석 결과 도출되었다. 사례지역의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은 '인정받음'이라는 세 번째의 단계까지는 도달할하였으나 '같이 할 수 있음'의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 차원의 협조와 노력이 더욱 부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주요어 : 도시빈민, 고립, 영구임대주택, 주거, 지역관계, 질적연구방법론

[†] 교신저자 : 이은주,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3-15,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violete66@naver.com

I. 문제제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그들의 반사회적 행위, 특히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거주지역의 슬럼화에 대한 묘사는 언론이나 선행연구의 보고를 통해 자주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공공주택의 공급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공주택에 대한 묘사와 연구결과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첫째, 70~80년대 선행연구에서 묘사하던 강인하고 역동적인 달동네의 빈곤층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인가, 그러한 빈곤층들은 생활 터전에서 퇴출되어 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본질적인 특성이 사라지고 서구에서 이론화한 슬럼지역의 빈곤문화가 재현되는 빈곤층으로 이미 변화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둘째, 영구임대주택에는 소득 1~2분위의 경제적 궁핍과 질병, 육체·정신적 장애, 노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¹⁾을 가진 가장 어려운 집단이 거주하도록 제도적·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경제, 문화적인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배제양상²⁾이 나타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노태우 정부시기인 1989년에 공급되기 시작하여 사회복지 성격을 갖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택으로 1994년까지 약 19만호가 공급된 이후 중단되었다(박운영, 2007:100).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은 당초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및 보훈대상자 중 일정소득 이하인 자로 되어 있었다³⁾. 그리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의 증가가 발생하여 경제적 상황이 호전된 가구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는 소득 1~2분위의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 취약한 인구층의 집단 주거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구임대주택에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입주민이 아닌 다른 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것은 애초에 용인되지 않았으며 거주할 경우 오히려 부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은 같은 지역 내 일반주택 거주자들과 사회적 지위와 계층적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입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차별이나 갈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

- 1) 박운영(2007)은 “경기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해 조사하면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많고 학력 수준이 매우 낮으며 무직과 노무직이 많고 소득수준도 매우 낮다는 것,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절대빈곤층을 정책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정책의 자연스런 결과로 보이지만 이 정책이 저소득 빈곤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덧붙인다.
- 2) 영구임대주택은 처음 공급될 당시 도시의 외곽에 주로 설립되고 입주되어 입주민들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생활 시설이나 교통, 문화공간이 거의 제공되지 못하였고 이후 그러한 지역에 일반주택이 건설되면서야 비로소 삶의 영위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점진적으로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는 정책적으로 입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 배제를 감수하고라도 시행을 하겠다는 제도의 속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3) 그 이후 자격기준이 저소득 모자 가정, 청약저축가입자 등 일정소득 이하인자, 철거세입자 및 일본군 위안부, 탈북 새터민 등으로 확대되었다.

미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하면서도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나라 공공 임대주택의 증설 필요성을 역설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영구임대주택의 거주환경이나 입주민에 대해 공급 초기부터 보고되던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낙인의 결과는 제도적으로 비롯되거나 주류사회의 의도이지 그곳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즉 빈민층이 거주하던 전통적인 지역에서 내몰아 고용, 교통, 의료시설, 지역유대가 거의 준비되지 않은 공간에 도시빈곤층을 몰아놓고 방치할 뿐만 아니라 입주한 지역의 주민들과의 괴리와 차별의 늪에서 양 주체를 갈등으로 몰아놓고 정책적인 개입도 없었던 제도입안자와 실행자들의 무책임한 행정논리로부터 임대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기인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행 연구에서는 그 문제의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반사회적 행위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만 논의를 부각하면서 사회적으로 입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를 제공한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그들이 임대주택 내 주민자치조직의 존재여부를 모른다거나(박윤영, 2007), 조사대상자 중에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거나(진명숙, 2005),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20년의 경험이 탈빈곤과 복지증진으로 연결될 수 없었다(남기철, 2010)는 논의는 제도입안자

에 대해서보다는 입주민에 대해 결과의 책임을 돌리는 ‘희생자에 대한 비난(blaming victims)’ 현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기한 문제는 이미 제도의 도입과 함께 예상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최빈곤층인 거주자들의 피나는 인고와 노력의 결과로 줄어들고 있으며 그 차원을 넘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한 도전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도시빈민들은 부적절한 제도의 희생자이며 낙인의 대상자로만 머물지 않고 자신들을 도시 외곽으로 내몰고 낙인을 찍은 정부와 주류 사회의 울가미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역동성을 보여 주어왔고 그러한 근거를 그들과의 내러티브와 지역과 주민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의 논의에서 주체가 배제된 채 혹은 수동적이며 무기력한 존재로만 도시빈민을 상정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나라 역사의 주역으로 면면히 흐르는 역동적 주체로서의 도시빈민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도시빈민들이 맺고 있는 이웃, 그리고 지역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필자는 선행 연구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정감 있고 활발한 이웃관계의 측면과 이러한 이웃관계가 더 큰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연구에서는 거주자들 간의 개인적이며 영구임대주택 내부

4)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이 더욱 증가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그 비율이 높아질수록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문제가 약화되고 국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000(2010) “복지국가 주거정책의 두 가지 길: 단일임대모델과 이중임대모델에 대한 분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관계에 초점을 두어 영구임대주택 거주 도시 빈민들의 지역적 고립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외부 지역사회 그리고 더 큰 주류사회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도시빈민의 지역적 고립성에 대해 보다 천착해 들어가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Wilson(1987:60)은 사회적 고립을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개인이나 기관과의 접촉이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결핍된 상태”로 정의한다. Wilson(1987)은 도심지 이웃들은 과거 20년 동안 변화하였는데 도심지 거주자들은 20년 전보다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에 대한 연구들도 Wilson이 묘사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기존 연구들(진명숙, 2005; 최종혁, 이연, 2005; 남원석, 2007; 박윤영, 2007; 남기철, 2010)은 아파트 단지 내의 음주, 다툼, 청소년 비행의 문제와 단지 외부와의 공간적 분리와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989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은 올해로 공급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나 선행연구나 각종 보고서를 통해 보고되는 결과는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남원석(2007)은 공공임대주택은 문제해결의 수단이면서 또 다른 문제발생의 근원지가 되어 왔다면서 그 대표적인 문제가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저소득층의 집단거주지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단지 내 활력이 감소하고 반사회

적인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주변 지역사회로부터 가해지는 낙인(stigma)과 결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섬’으로 전락시킨다고 적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주거지에 대한 애착은 더욱 줄어들고 외부의 차별에 대해 주민들은 때때로 흥분해서 대응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가난 등을 탓하면서 위축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비하나 절망적 사고, 패배적 사고를 형성하게 된다(보건복지부, 한국도시연구, 2003)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최종혁·이연(2005)은 저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중산계층의 유입이 보다 확대되고, 이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과 주변의 일반아파트단지와의 무형의 계층경계가 보다 확연해지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들은 또한 “생활주변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주민에게 적지 않은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심리적 소외감을 심화시키고, 청소년 비행, 범죄, 음주, 슬럼화 등 각종 새로운 지역사회 문제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고하였다. 최종혁·이연의 주장은 주변의 환경이 개선되는 반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사회문제가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공급 15년이 지나 조사한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박윤영(2007)은 경기도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이익대변조직(임차인대표회의)의 존재에 대해 ‘있다’로 응답한 답변이 48.9%, ‘없다’ 23.1%, ‘모르겠다’ 28.0%로 나타나 주

민의 50% 이상이 조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웃과의 교류에서는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응답이 3.8%로 매우 낮기는 하지만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53.8%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파트 위치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좋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나쁘다’고 응답하는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75.5%)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연구는 임대주택 공급 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은 것으로 주민들이 인지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이웃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초기 연구들에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저자가 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이나 관찰, 그리고 이익대변조직을 위해 일하는 주민대표들과의 면접도 같이 수반했다면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응답이 매우 낮다는 것도 주민들이 이웃 간에 서로 알고 지내는 것 이상으로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은주(2009)의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이 활발한 이웃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거주자들은 과거 전통가옥에서 나누었던 ‘정겨운 이웃사회의 복원’ 까지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남기철(2010)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20년의 경험이 탈빈곤과 복지증진으로 연결될 수 없었고, 오히려 슬럼화와 사회적 배제의 심화가 농축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면접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압도적이었다”고 적고 있다. 반면, 박윤영(2007)은 입주 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고 관리부문이나 아파트의 공간적 위치에 있어서도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는 것을 볼 때 두 연구에서 보고한 입주민들의 견해 상에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민들이 과거 오랜 시간동안 그들끼리 유지하던 끈끈한 관계를 다양한 연구 속에서 놓치거나 외면하는 것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이 사회적 배제론에서 출발하고 그 이론을 현실에 끼워 맞추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과 영구임대주택에서 주민들이 적응하기 전에 나타난 다양한 반사회적인 행위들을 확대 해석하거나 적응 후의 주민상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의 형태와 주민들의 일상을 그 환경과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연구는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으로서의 영구임대주택에서 초기부터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데는 기여를 하였으나 그러한 문제에 주민들이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고 있지 않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서구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사회적 배제론에 입각하여 묘사되던 다양한 문제를 나열하고 더욱 강화하는 데만 급급하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하는 우리나라 빈민들의 건강함과 역동성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실제와는 맞지 않는 ‘정체 모를 빈민상’을 그려내고 급기야 빈곤문화의 등장이라는 것으로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론에 입각하여 우리 빈민들의 상태나 관계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연구 자료에서 나온 결과를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주민들의 다양한 상태를 세밀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좌절하고 발버둥치고 극복하거나 변화하려고 노력한 입주민들의 다양한 행위와 전략의 활용에 천착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살아남기 위한 고난스러운 역경의 역사를 그려내기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계층의 집단 거주지로서의 영구임대주택에서 발생하고 보고된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해왔고 그러한 노력의 성과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도시빈민의 고립성 여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론

1. 연구문제와 질적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중심적인 연구문제는 “과연 도시빈민들은 지역적으로 고립되었는가”이다. 도시빈민의 고립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1. 도시빈민들은 주거지 외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는가?
2. 도시빈민들은 주거지 밖 지역사회에 거주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가?

3. 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고립되는가? 혹은 고립되지 않고 어떻게 지역사회와 교통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접근하기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시빈민의 고립성을 윌슨(Wilson)(1987)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출발하고자 한다. 윌슨(1987:60)은 사회적 고립을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개인이나 기관과의 접촉이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결핍된 상태”로 정의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론적 접근으로 도시빈민을 접근하였으므로 룸(Room)의 사회적 배제론 개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소외로서 사회의 주류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포괄적 개념이다(Room, 1995).

이러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의에 기초하면 도시빈민이 지역적으로 고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몇 가지의 방법론적 접근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류사회와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주민들이 직장으로서의 출퇴근, 교회출석, 임대주택단지 외부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물리적인 상호작용 외에 주민들이 외부사회와의 상호작용 및 관계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묘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등을 확인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도시빈민의 지역적 고립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후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의미부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양적연구방법론보다 질적연구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이다. 질적연구방법론은 다른 방법론으로는 용이하게 제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한다(Rice and Ezzy, 2000:4). 특히 질적연구방법론은 연구대상을 그들의 환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데 있어서 더욱 유리하다. 본 연구와 같이 연구대상을 그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할 때 이들의 삶의 경험은 거주환경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생산과 재생산을 반복하므로 환경과 분리하여 그 개인들을 이해하지 않고 질적연구방법론과 같이 환경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사례지역의 선정과 자료수집방법

본연구는 질적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시빈민의 지역적 고립성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1-2분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장 배제되었다고 가정되는 영구임대주택을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영구임대주택은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며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도시 내의 ‘고립된 섬’으로 묘사된 곳이기도 하다. 도시에 살고 있는 빈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는 고시원, 쪽방, 옥탑방, 지하셋방,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고시원, 쪽방, 지하셋방, 옥탑방은 빈곤층

이 거주하지만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고립되기는 힘든 지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중에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전통가옥 구조와 달리 아파트라는 공간의 성격 상 지역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도 활발하게 교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은 도시빈민의 고립성을 확인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되었다.

도시빈민의 성격상 서울시의 영구임대주택을 사례연구지로 정한 후 연구자가 보다 짧은 시간동안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거주하고 잘 아는 지역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사례 선정의 편파성을 피하기 위해 서울 시내 동서남북 지역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관찰하고 몇 사례는 심층면접도 진행하여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영구임대주택이 서울 시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영구임대주택 주민들과 일반주택 주민과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영구임대주택들의 주변지역에 비해 사례연구지역은 주거환경은 양호하나 일반 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주민 간의 소득 및 사회문화적 격차가 가장 높아 고립성을 확인하는데 더욱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례로 선정된 영구임대주택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먼저 임대주택 주민 전체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를 찾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와 주민자치조직의 대표를 만나 심층면접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일부 참여자를 소개받았다. 다음으로는 주택 내에서 이웃과 잘 어울

리지 않는 참여자를 만나기 위해 경비를 통해 소개를 받거나 공원에서 혼자 다니는 분들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 동의를 구하였다. 누군가의 소개를 받지 않고 혼자 다니는 분들의 경우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몇 차례 만나 친분을 쌓고 연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참여 수락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더욱 고립된 참여자를 찾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광고문을 임대주택 단지 내에 부착하여 연구자에게 전화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참여자와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심층면접 외에도 부녀회장, 노인회장, 장애인회 운영자, 사회복지사, 관리사무소직원, 그리고 동네 가게의 점원들과도 면접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시적으로 주택단지 내·외부를 돌면서 놀이터, 공원, 복지관, 경로당 등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과 주택 내부의 시설 및 공공장소의 환경을 관찰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심층면접은 총 14명의 연구참여자와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1차 면접이 진행되었고,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일부분의 추가 면접과 관찰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의 실시 전에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그리고 심층면접의 방법, 질문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면접 중에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답변하지 않거나 면접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면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을 할 것과 이를 어길 경우 연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된 동의서를 제시하고 설명한 다음 같이 서명하여 참여자와 연구자가 한 부씩 나누어 가졌다. 또한 동의서에는 모든 면접은 녹음을

할 것이며 녹음파일은 녹취한 후 폐기하고 녹취파일은 연구자의 철저한 관리로 비밀을 유지할 것을 명시하였다.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은 2시간 이상 진행되었고 사생활보호를 위해 면접은 원칙적으로 참여자의 집에서 실시하였으며 집에서 못할 사정이 있을 시 복지관의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충분한 자료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나누어 면접을 하거나 참여자의 요구와 이웃 간의 생생한 대화를 파악하기 위해 2-3인의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심층면접의 방법은 연구자가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입주 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와 친하며 이웃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하였으며 스스로 이야기를 충분히 전개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누락된 정보나 불확실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3.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참여자는 <표1>과 같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남성 7인과 여성 7인이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모두 40대 이상이며 40대 1인, 50대 6인, 60대 4인, 70대 3인, 결혼 상태는 기혼이 7인, 이혼 4인, 사별 2인, 미혼 1인 그리고 학력은 초졸 4인, 중졸 4인, 고졸 3인, 고졸퇴 2인, 대졸 1인이었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는 총 8인이었으며 그 중 2인은 질병 상의 이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었고, 가구소득은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분포되었고 평균소득은 약 111만원이었다. 다섯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가구였으

며 모든 가구가 15년 이상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였다.

4.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 및 신뢰도는 삼각측정(triangulation)을 통해 확보하는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와 그것의 분석이 사례지역 전체 주민을 대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집단을 대표하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이미 밝혔듯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고 참여자 외에 사회복지사,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 부녀회 등 각 자치조직의 대표들, 그리고 동네 가게의 점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사례지역을 자주 방문하여 주민들을 관찰하고 얼굴을 익히며 외부자로서의 연구자가 내부자가 되는 과정까지 친숙함을 배가 하였다.

다음으로는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만나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였다. 또한 두 명의 연구자가 심층면접을 마치고 항상 면접의 내용에 대해 서로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업	가구소득	수급 여부	거주 기간
1	남	49	이혼	대졸	대리운전, 야간배달	60만원		16년
2	여	51	기혼	고졸	신문배달, 닭집 남편: 택시운전	150만원		16년
3	여	56	기혼			70만원		16년
4	남	51	미혼	고졸	비정기 파트타임	30만원	수급	16년
5	남	70	기혼	중졸	자영업	100만원		16년
6	남	70	기혼	고중퇴		250만원		16년
7	여	51	기혼	중졸	파출부 남편: 목수	300만원		16년
8	여	70	사별	초졸	파출부: 주2회	50만원		16년
9	여	66	사별	초졸		40만원	수급	15년
10	남	52	기혼	초졸		80만원	수급	16년
11	남	65	기혼	초졸	아내: 식당	150만원		16년
12	여	60	이혼	중졸	식당일 잠시 쉽	200만원		15년
13	남	69	이혼	고졸		40만원	수급	16년
14	여	50	이혼	중졸	식당 잠시 쉽	40만원	수급	16년

논의하여 해석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참여자의 일부를 찾아 어떤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사례지역 외에 다른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만나보고 임차인대표회의 회장과 면접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분석의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IV.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참여자들과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녹취록과 관찰노트, 그리고 사회복지사,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조직의 대표들과 면접이 포함되었다. 분석과정은 먼저 자료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고 중심주제와 범주를 파악하였다. 다시 자료를 읽으면서 중심주제와 범주를 연결하였고 관련된 인용구를 해석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참여자들은 주택 내부의 이웃들과 매우 활발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택 외부의 주류사회와도 직업이나 종교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을 매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내부 이웃들과의 관계를 내부관계, 그리고 주택 외부 지역사회 또는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외부관계라고 나누어 보면 모든 참여자들이 이웃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할뿐만 아니라 다수가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부 관계에 대한 주민들과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

보면 내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이 외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참여자들은 이웃들과 활발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14명의 참여자 중에 주택 내의 공식 혹은 비공식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7명으로 50%를 차지하였는데 그들은 임차인대표회의, 청소년지킴이와 같이 전체 구성원을 아우르는 조직에 가입하거나 향우회, 동 친목회와 같은 주택 내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작은 규모의 친목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도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등산, 운동, 식사, 장기, 바둑 등과 같은 취미 활동을 같이 즐기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전하였다.⁵⁾ 그러나 내부관계 중에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유대를 가지는 데 매개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조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조직들은 임대주택 내 주민들의 권익이나 권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사회와 임대주택을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한다. 이러한 주민자치조직이 얼마나 다수 조직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가입하여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는가에 따라 임대주택이 내부적으로 주민들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체로서 주민들을 통합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유대와 결속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5) 이러한 활발한 이웃관계에 대한 내용은 이은주(2009)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외부관계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한다.

〈표 2〉 연구참여자의 내부관계와 외부관계

참여자	성별	연령	직업	내부관계	외부관계
1	남	49	대리운전, 야간배달	충청도 향우회	성당산악회
2	여	51	신문배달, 닭집 남편: 택시운전	청소년 지킴이 이웃과 등산, 운동	사우나 매점 근무로 외부에 2년 거취
3	여	60	남편: 경비	청소년 지킴이 부녀회 2년 이웃과 차, 등산	남편과 세탁체인점 운영하다 쉽
4	남	51	비정기 알바	조직가입 없고 이웃과 어울림	-
5	남	70	흡연소집	동대표 6년 통장협회장	교회출석 인근지역인들과 활발한 유대
6	남	70	딸: 메이크업	단지 조직의 중간역할, 자문, 활발한 지원	강남구청봉사단, 선거관리위원, 노인일자리찾기운동팀장
7	여	51	과출부 남편: 목수	이웃과 활발한 교류	일과 관련된 사람들
8	여	70	과출부: 주2회	몇몇 이웃과 운동, 대화	고향친구 친목계
9	여	66	동대문시장 도매, 구두공장 퇴직	이웃과 식사, 대화 동 친목계	교회출석 친정, 시집 자주 왕래
10	남	52	질병으로 일 그만 두고 단지내 봉사	청소년지킴이 회장	복지관, 교수, 국회의원, 경찰, 사회복지사
11	남	65	아내: 식당	이웃과 장기, 바둑	-
12	여	60	질병으로 식당일 잠시 쉬	이웃과 식사, 일자리 알선	입주 전 동네 친목계 성당출석, 레지오
13	남	69	없음	임차인대표회장 및 이웃교류	동사무소 외부 세미나 참석
14	여	50	질병으로 식당일 잠시 쉬	이웃 몇몇과 교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1. 주민자치조직

연구를 진행한 영구임대주택에는 임차인대표회의, 부녀회, 청소년지킴이, 지체장애인협회 분회, 노인회, 도 향우회 등의 주민자치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부녀회는 입주 당시부터 동 단위와 전체 단위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이다.

입주 초기에는 전체 부녀회장과 각 동 단위 부녀회장이 모두 존재하였으나, 부녀회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전체 부녀회장과 몇몇 동의 부녀회장이 공식으로 남아있어 7개 동 중 4개동에만 부녀회장이 존재한다. 지체장애인 협회 분회는 10년 이상 단지 내 장애인들의 자치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단지 내의 장애인들과

외부 장애인 단체와의 유대와 연결을 위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주민자치조직에서 자주 나타나는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이 장애인조직에도 존재하지만 장애인들 대부분이 이 조직을 인지하고 있으며 외부의 다른 장애인들과의 공동의 문제나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직들 중 매우 활발하게 활동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모든 구성원들을 포괄하고 주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곳이 '임차인대표회의'와 '청소년지킴이'이다. '임차인대표회의'와 '청소년지킴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주민자치조직들이 어떻게 주민들을 통합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임대주택을 주택 외부의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창구역할을 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가. 임차인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 당시 지역복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1992년 11월 대통령령 규약 변경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법적으로 인정된 주민자치조직이지만 모든 영구임대주택에 구성⁶⁾된 것도 아니며 존재하더라도 주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과 부회장 및 각 동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현 대표는 6년 간 연임을 하고 있었고 주민들에게 깊

은 신뢰를 얻고 있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 이후부터 소집되었으나 1992년 11월 이후 정식으로 구성되어 회장, 부회장 및 각동 대표까지 총 9인이 활동하고 있었다. 연구진이 이 임대주택을 방문했을 당시 임대주택에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난방비가 전해의 같은 달에 비해 과도하게 징수되어 논란이 일고 있었다. 당시 임차인대표회의는 신속하게 대책회의를 하여 SH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항의하고 단지 내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징수 내역을 조사하여 결국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징수된 난방비를 돌려주는 성과를 얻어냈다.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임대주택이 잘 운영되기 위해 이 조직의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문제는 그래요. 여기 단지 자체가 대표가 없으면 살림살이를, 우리가 돈을 내 놓고 돈을 어디다 쓰지도 몰라요. 우리 대표가 구성되어 제어 장치를 하고 있지. 지출 내역서 사인 하면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이 건 형식적으로 받아놔요. ..중략.. 그랬는데 지금 형식적이거나 대표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제동 장치가 되지.

〈참여자 5〉

다음 참여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동네의 중심적인 사안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해 다양한 상담을 해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단지를 위해 청소 등의 자원봉사를

6) 하지만 필자가 서울지역 네 곳과 강원지역 한 곳의 영구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대표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하도록 결집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한다.

열 세분 정도 동네에 아무 것도 없을 때 말
씀 좀 있고 청소라도 하시는 분들이 했죠.
OOO동 김OO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도와
주고 하시니까, 지금도 회장님과 상의하시
는 거 같더라고요. <참여자 1>

그래서 우리가 동 대표되면서 사람들을 자
꾸 다독거렸죠. 그런데 사실 동 대표들
1508세대에 4200명이 살지만 모르는 사람
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동 대표라고 해서
사람들을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가다보면
서로 시비 붙고 서로 말다툼이 되고 싸움
이 되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올 때부터 우리가 청년회를 조직 했어요.

<참여자 10>

나. 청소년지킴이

청소년지킴이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
직한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위한 자치조직이다.
입주 이후 단지 내외의 청소년문제와 음주·
폭력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
성이 제기되어 입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주민들을 조직하여 단지 내외의 방범, 순찰활
동을 시작하면서 조직되었다. 1990년대 후반
부터 조사시점 10년 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펼
치고 있었으며 그 동안 모범적인 주민조직으
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및 사회단체에서
각종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단지의 주
거안정으로 예전만큼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하
지 않아 이전에 비해 활동인원이 줄어들었으
나 청소년지킴이 대표를 비롯한 약 20여명의
주민들은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지킴이 회장은 처음 청년회를 구성했다
가 이를 청소년지킴이로 전환하여 이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노력과 헌신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단지 내 주민자치조직을 이
끌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지도자들이 청소년지
킴이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주민
을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는데도 이 조직이 높
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지킴이 조직은 주민 안으로 깊게 스며
들어 주민과 아동의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이끌
어내고 임대 주택 내부와 외부의 환경을 개선시
켜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과 자신감과 심어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이러한 청소년지킴이가 주민들과 지역에 미
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키자’는 모토로 조직을 구
성하고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입주 당시
단지 내의 청소년들은 한부모, 조부모, 그리고
맞벌이 부모가 제대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여
흡연, 음주, 폭력, 가출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
생시키고 급기야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을 성인들이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르
게 되었다. 전국의 문제 청소년들이 이 임대주
택 옆의 공원에 와서 진을 치고 일탈과 탈선행
동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파출소나 경찰도 제어하지 못할 정도였고 치안
이 불가능한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 없는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청소년지킴이’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연중 하루도 쉬지 않고 밤 10시부터 새벽 2-3시
까지 마을 내외를 돌며 방범과 순찰활동을 전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
키자’는 원칙은 한편으로 주민들의 공감을 얻
고 참여로 이끌어내며 10년 동안 주민을 결집
하고 청소년을 지키는데 버팀목이 되었다.

다행히 000 단장님과 지킴이가 있잖아요. 나요 그거 때문에 여기 아이들 많이 잡아줬어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여기 여자애들이 때 지어서 다니고 도저히 안 돼서 단장님이 청소년 지킴이를 따로 두셨죠. 지금은 7~8명인데 그때는 10여명 돼서 다들 봉사를 했죠. 그래서 많이 좋아졌죠. 본드 마시는 애들. 지금은 수고 하신다고 인사도 하고

〈참여자 3〉

그래서 80세 할머니들도 우리를 좋아하고 할아버지들도 우리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전부가 ‘아 지킴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인정하죠. 지금 관리 사무소 있는데 할머니들이 와 갖고 울면서, 박카스라도 한 박스 사 갖고 와서 울면서 이걸 좀 어떻게 해 달라. 그래 갖고 그 애를 우리가 잘 다독거리며 매일 그 애가 오는 시간만 되면 학원에 갔다 오는 시간만 되면 우리가 정문 앞에 나가서 서 있었어요.

〈참여자 10〉

둘째, 청소년뿐만 아니라 입주민 전체에 대한 자기통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키자’ 는 모토는 성인들의 문제행동을 제어하는데도 효과적이었다. 술을 마시기보다는 같이 동네를 돌면서 봉사를 하고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정신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봉사가 금전이나 자원으로 풍족하게 못해주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음이라는 공감대와 성인들의 술선수범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아동과 부모에 대한 행동의 암묵적인 통제는 임대주택 내부의 무질서와 혼란을 바로잡는데 중요했으며 임대주택의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문제 청소년들을 압박하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독이며 품어주는 방법을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달래서 집에 보내고 컵라면이나 음료수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며 부모와 소통하도록 도와주고 조언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어린 시절 문제행동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지킴이 회원들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되새기면서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어떤 훈계나 책망보다 ‘들어주고 품어주는 것’ 이 제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터득한 부분도 있었고, 이들이 복지관의 도움을 얻어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수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의 경찰들이 다스리지 못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차츰 줄어들고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는 청소년지킴이 활동을 하는 회원들과 주민 전체에게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배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00대학교 교수가 여기에 몇 년씩 주둔해 살았었어요. 그 분한테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갈 적에도 00대학교 교수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호흡해서 1박2일 또는 2박3일 정도 계속해서 매년 교육을 받았죠. 교육을 받고 서로가 토론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참여자 10〉

넷째, 전체 지역사회에 대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는 의지와 성과를 보여주어 지역의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경찰이나 전문

가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회의적이었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와 경찰과의 연대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신입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새벽 1시, 2시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신고가 들어가면 파출소에서 나오고, 파출소에서 나와 갖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내가 있으면 나를 불러 갖고 ‘아무리 지킴이가 그거를 해도 10년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대로 일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 “당신도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당신은 또 국가에서 녹을 먹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애들을 비방하는 식으로 하느냐” 내가 그랬더니 한 번 보라고 오토바이, 자전거... 여기 애들만 그거 한다 그거야. 〈참여자 10〉

다섯째 청소년지킴이는 임대주택 주민들을 외부와 연결하고 지역사회와 유대와 결속을 다지는 계기도 만들어냈고 중국에는 지역사회 차원을 넘어 전국적인 차원으로 자신들의 성과를 알리고 연대를 획득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했냐면 파출소 부사장급, 소장급하고 동사무소 청소년 담당하고 복지관 내에 우리 입주자 대표 회장 이렇게 회의를 했었어요. 매 한 달에 한번씩, 하고 동네 이야기를 하고 청소년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애들을 이렇게 하고 하더라도 애들이 복지

관에서 그 애들을 계속 참견하고 다독거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사고치고 하니까. 그래 나는 또 복지관에 가서 ?연락 오고 하니까 애들이 어디서 담배를 피운다, 본드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 나는 또 복지관 선생한테 가서 애들을 좀 다독거리라. 그래서 애들 다독거리다 보니까 그 애들이 지금은 커서 사회생활도 하고 애도 낳아서 한 번씩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인사도 하고. 〈참여자 10〉

여섯째, 주민들에게 조직의 중요성을 일깨웠던 것이다. 주민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조직 활동의 중요성,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을 약화하고 집단의 힘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한 자신감으로 이 임대주택의 주민들은 인근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조직화된 행동을 하여 보상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던 경험도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부당한 난방비 과다 청구에 대항하여 주민들의 합의를 모아 체계화된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이며 노령, 장애, 질병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직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안 되지만 단결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2. 외부관계

영구임대주택 거주 도시빈민이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참여자들의 외부관계에 대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주류사회와 정기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

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주택 외부의 특정 지역에 위치한 공간으로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의 종교기관으로 정기적인 출석, 자발적인 봉사활동, 그리고 개인적인 교류관계를 통한 접촉이었다. 14명의 참여자 중에 6명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직업을 통해 주류사회와 교통하고 있었고, 나머지 8명 중에 두 참여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일을 중단하였지만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2명은 질병으로 앞으로 직장을 다니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참여자는 모두 65세 이상으로 직업을 갖기에는 연령이나 건강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참여자 중에 네 명이 조직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지역이나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였고 나머지 세 명은 외부관계가 활발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의 외부관계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와 정기적으로 접촉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6인이었고 지역사회 외의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가 4인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4인은 혈연관계를 제외한 정기적인 접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부와 정기적인 접촉이 없다고 한 4인 중 2인은 질병이 있기 전까지 세탁소를 운영하거나 식당에 다니면서 외부와 교통을 하였고 나머지 2인 중 1인은 부정기적인 파트타임 일을 통해 조사 당시에도 외부와 접촉을 하고 있었다. 결국 1인의 참여자만이 두 가지의 범주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고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참여자가 지역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참여자는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내는 16년 동안 한 식당에서 당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그의 자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분가하여 살고

있었다. 그는 외부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 또는 자녀들과의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외부세계와 소통하고 있었다.

입주민들이 지역사회 또는 주류사회와 정기적인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조건은 그러한 접촉이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극빈한 상황에 처한 입주민들이 생산성을 배제한 외부와의 접촉을 할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조건은 만약 생산적인 접촉이 아니라면 최소한 돈이 들이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누군가와 개인적이며 집단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쌍방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 간 동일한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기여와 나눔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부모, 자녀 간이 아니면 혈연관계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이들이 지역의 다른 개인들과 어울리고 집단에 동참하기 필수적인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셋째 조건은 집단적이며 보다 공식적인 차원의 접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이 가입한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타 단지의 자치조직과의 관계라든지, 집단차원의 지역의 특정한 사안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것이 개인적인 교류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내부관계는 활발한 반면 외부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이유가 존재한다. 입주민들의 내부관계는 서로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차원의 교류가 가능하다. 서로 동질적인 문제와 유사한 수준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가능한 기여와 나눔을 이루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이 질성이 높을수록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여해야

하고 다른 한쪽은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작이 되어도 유지하기 힘들다. 다만 위의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외부와의 정기적인 접촉이 가능하므로 입주민들의 외부와의 접촉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세 가지 전제가 허용되는 접촉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러한 공간으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입주민들이 다니는 일터, 종교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이 포함되며 집단적인 차원으로는 입주민들 간의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간접으로 접촉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이러한 주민들의 상태를 미리 알고 도움을 주거나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단체나 조직이 입주민들과 교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입주민들과 교류를 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파악되지는 않았다. 다만 주류사회의 구성원들이지만 영구임대주택의 구성원들이기도 한 경계성 외부집단이 존재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단지 내 사회복지관, 단지 구성원들을 위한 종교기관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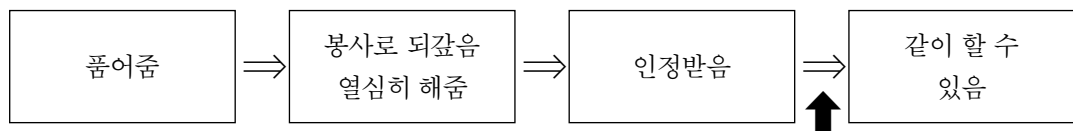
3. 지역사회 관계형성의 과정

영구임대주택의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참여자들

과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사회에서 품어줌, □ 봉사로 되갚음, □ 인정받음, □ 같이 할 수 있음이라는 과정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주민들은 인정받음이라는 세 번째의 단계까지는 도달해 있으나 같이 할 수 있음의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이 주민들이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하기에는 지역사회 차원의 협조와 노력이 더욱 부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가. 사회에서 품어줌—경계성 외부집단의 중요성

‘품어줌’은 지역사회와 주류사회가 먼저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품어줌’의 의미는 지역사회 차원과 전체 사회차원에 모두 적용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역의 다른 성원들이 이들을 차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다. 전체 사회차원에서는 일터나 직장에서 계층적 차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믿어주는 것이다. 이 개념을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적용하면 전자는 지역사회에서 일반 주택의 주민들이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이들이 사회진출을 할 경우 담당하는 일이 비록 일용직, 식당, 청소, 도우미 등의 취약한 일자리일라도 그 역할을 인



〈그림 1〉 지역사회 관계 형성의 과정

정하고 존중해주며 믿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의 입주민들과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주택 주민들의 이해와 수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입주 초기에 지역사회의 이해와 수용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차별, 그리고 낙인화라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일부 구성원 또는 임대주택 구성원인 주류사회 구성원이기도 한 일부의 영역이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을 받아주고 조건 없이 품어주기 시작하였다. 후자를 본 논문에서는 '경계성 외부집단'이라 부르며 이들은 지역사회와 영구임대주택 주민들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매개체들이다. 이 경계성 외부집단은 영구임대주택 내부에 위치한 교회, 복지관의 구성원들이거나 그러한 곳으로 자원봉사를 다니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다. 이러한 경계성 외부집단은 임대주택 주민들의 상태와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나눔과 돌봄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 또한 경계성 외부집단은 주류사회의 외부 구성원들이 임대주택 주민들과 관계하도록 더 많은 주류성원을 끌어들이며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접촉은 상대에 대해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던 관계에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종교단체나 일반 주택의 부녀회 등은 영구임대주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입주 초기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지역사회

와의 첫 접촉은 차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이 받은 차별의 느낌은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과 결합하면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낙인화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떤 집단이 외부로부터 차별을 받을 때 적극적인 항의를 하거나 갈등을 잘 조정한다면 차별이 낙인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처음에는 서러워서 했어요. 애들 생일날 초대도 못 받고 너는 1단지니까 오지 마. 부모들이, 잘사는 부모들이, 너희들은 오지 마. OO단지 애들은 안 돼. 버릇 나빠. 손버릇도 안 좋아. 그 소리 들었을 때 엄청 서럽죠. <참여자 5>

참여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는 초기 지역사회의 멸시와 차별로 인해 주민들이 서럽고 좌절을 느끼기도 했지만 스스로를 낙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정식으로 항의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을 받게 된 원인을 찾아 변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들은 주민자치조직인 청소년지킴이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차별에 대응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복지관이나 교회의 '품어줌'은 주민들의 서러운 마음을 풀어주고 아이들에게 주류사회의 규범을 배우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교회에서 데려다가 말도 못하는 애들을, 저렇게 놔두면 버린다는 애들을 교회에서 품고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참여자 9>

나. 봉사로 되값음

‘되갚음’은 상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며 믿어줄 때 나도 상대에게 같은 신뢰로 대하며 받은 것을 어떤 형태로든 되돌려주겠다는 의식이 싹튼다는 개념이다. 영구임대주택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에서 연구자가 발견한 특징 중의 하나는 참여자들이 ‘봉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참여자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내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호⁷⁾하다면 하나는 생산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생산 활동이 힘들 경우 봉사활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 활동이 중요한 것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규범에 서로 동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라도 해서 국가와 사회에 되갚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참여자 1은 자녀가 둘인데 입주 초기부터 아내와 아이들이 임대주택 단지 내 교회에 출석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모두 교회에서 도움을 주어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빠들어지지 않고 빠르게 자랐으므로 이를 봉사를 통해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다.

불량 애들이 많았으나 지킴이 활동도 많았

고 교회에서 유치원 다니고 믿음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 있는 애들 거의 많이 끌어당기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애들이 그래서 올바르게 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큰 도움을 받았죠. 다니고 싶어서 다닌 건 아니고 애들이 다니다 보니 너무 고마워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더라구요.

〈참여자 1〉

참여자 6은 70살의 고령에도 국가에서 도움을 주어 살고 있으니 지역사회에 이를 되갚아야 하므로 지역봉사단이나 선거관리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국가에서 도움을 주었으니까 나도 도움을 줘야지. 강남구청에서도 봉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노상에서 담배꽂초를 함부로 버린 다든가 뭐 이런 거 일부러 선거 관리 위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도 내가 하고. 백 몇 명 나갈 때 거기서도 개표로 활동했었고, 실업자 실태 조사도 겨울에 했었어요.

〈참여자 6〉

참여자 3은 건강상태도 심각하고 손자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정신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지킴이 등의 봉사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세탁 체인점 했어요. 처음엔 먹고 살기 바

7) 영구임대주택 내부의 주민들과의 다양한 접촉을 한 결과 정신적 신체적으로 스스로 건강하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연령대가 높고 평생 노동집약적 생산직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50대 이후부터는 복합적인 질병의 징후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잘 치유할 금전적,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쁘니까 그걸 했는데 그거 그만두고 봉사를
했죠. (참여자 3)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봉사의 중요성을 가르
치고 있었다. 청소년지킴이 회장을 하고 있는
참여자 10은 청소년들에게 자라서 후원도 하
고 봉사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우리는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너희들도
앞으로 자식을 낳고 사니까 좀 나이가 좀
되고 그러면 봉사를 해라. 그리고 봉사하
기가 힘들다면 회사 같은데도 봉사팀이 있
잖아요. 안 그러면 복지관을 통하든 어딜
통하든 1, 2만 원짜리 후원을 해 주면 그
애들이 잘 될 것이고 네가 어릴 적에 해온
것이 용서가 될 것이다.

(참여자 10)

봉사가 아니라면 열심히 생산적인 활동을
하며 사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의무라고 보는
것이다. 학력, 기술, 배경이 부족한 영구임대주
택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가능한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해고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매우 취약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
고 생활하기 어렵다. 이들은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고 몇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사회
의 의존층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남편은 택시운전을 하고 사우나 매점에 근무
하는 아내는 2년 동안 집에 오지 못했다. 장애
를 가진 아들은 시설에 보내고 남편과 아들을
집에 둔 채 아내는 열심히 돈을 벌었다. 사우나
가 망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닭의 내장을 분리하는 일을 저녁까지
한다. 그리고 밤에는 청소년지킴이 봉사를 위

해 새벽까지 아파트 주변을 순찰한다. 이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러나 생활은 언제나 그대로
이고 불안해서 하루라도 쉴 수가 없다. 그래도
사우나에서 번 돈으로 아들에게 컴퓨터를 사주
고 독서실비도 대줬다. 고등학생 아들은 전교
에서 5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 했다. 그러나
아들의 학교에는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다. 학
교에서 오라고 해도 가는 것이 싫었다. 밤에 봉
사하는 일이 학교에 찾아가 부모역할을 못해준
아들에게 미안함을 갖는 것이고 장애아들을 말
긴 엄마의 아픈 마음을 달래는 것이었다. 이러
한 상황의 참여자 2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가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좀 해요. 사우
나 그런데서 매점을 봤거든요. 그래서 집
에 2년째 들어오는 거죠. 네,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
다, 그런 게 있고 하루라도 놀면 불안한 게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있어요. 한
지는 한 달 됐거든요. 신문 접고 새벽에 하
는 일인데 신문 놓으면 고객들이 가져가는
거 하고 있고요. 천호동 그거는 물건 해
줄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은 매우 바빠요.
그래서 평일 날 놓고 그 작업이 2만원 별
때 있고 그거 하고 천호동 가거든요. 집에
오면 8시 돼요. (참여자 2)

다. 인정받음

처음에는 무조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단계에서 이를 되갚는 단계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역사회와 주류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처음에는 불

평등한 관계에서 한 쪽이 일방적으로 품어주었다면 되잖음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통해 보다 평등한 관계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선입견이 사라지고 믿고 맡기게 되는 관계가 된다. 처음에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가능성을 믿지 않았고 품어주지 않았던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상황이 된다. 청소년지킴이 회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을 하기 직전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다’ ‘십년을 해도 그대로일 것’ 일 것이라고 믿어주지 않던 경찰이 변화를 보면서 알아주고 지역사회 밖으로까지 알려져 방송국에서 취재도 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새벽 1시, 2시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신고가 들어가면 파출소에서 나오고 파출소에서 나와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내가 있으면 나를 불러 가지고 “아무리 지킴이가 그것을 해도 10년을 하더라도 그대로 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 “당신도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당신은 또 국가에서 녹을 먹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애들을 비방하는 식으로 하느냐” 내가 그랬더니 한 번 보라고 오토바이, 자전거 여기 애들만 그것(절도) 한다는 거야. <참여자 10>

그래서 나는 파출소 소장한테 지금 속으로 그래요. 이번에 인터뷰할 때도 그랬어. ‘내가 이겼다’ 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내가 이번에 책자 내고 그럴 적에도 내가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봉사상 받은 거하고 KBS ..전부 테이프가 다 있어. 방송국

에서 주고 여기서 촬영 해간 거 있고...

<참여자 10>

참여자 8은 한 집에서만 17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 하였다. 그 집의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이사를 갔지만 아직도 다니고 있다. 이제는 그 집의 식구가 되었다. 그의 헌신성과 성실함을 그들이 인정한 것이다. 이제는 몸이 아파 일주일에 이틀만 다니고 있다.

둔촌동 쪽으로 다녔지. 천호동에서 시작해서 그 쪽에서 일을 해서 거기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갔어. 멀어서 못 가겠다고 해도 멀어도 오라고. 한 집에서 17년, 애들 두 달 때 들어가 대학 들어갔어요. 오래 다녔어요. <참여자 8>

참여자 9는 구두공장을 다녔는데 열심히 일한 결과 주인이 알아주고 모든 일을 맡기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니까. 주인들이 알아주더라고. 그래서 가면 주인들이 나한테 맡겨요. 일을. 예를 들어서 주인들이 지방예를 간다, 어디를 간다, 아줌마 이렇게 하라고 시켜놓고 가면 내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가면 사장하고 사모가 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 일 같이 해주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여자 9>

라. 같이 할 수 있음

임대주택 입주 초기에 인근 일반주택과 여러 불협화음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서러워하

고 조직적인 항의도 하였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스스로 변화를 모색했고 그러한 변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일부분의 ‘폼어쥘’ ‘인정해쥘’ 이 큰 동력이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끊임없는 무시와 멸시는 공존이 불가능한 ‘파탄의 상황’ 을 야기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교류를 하지는 않더라도 공존을 인정하고 이해와 배려를 하게 되면 같이 살기 위해 모색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과거에 길을 막고 못 다니게 하던 일반주택에서 지금은 영구임대주택 아이들을 더 많이 도와준다고 한다.

동네일을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또 안 잡고 넘어갈 수가 없고 잡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항의도 하고 이래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서 우리 애들을 더 많이 도와줘. (참여자 5)

그리고 주민들은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

탄천 걸었죠. 참 좋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동네가 교통도 좋고 너무 좋아요. (참여자 12)

직장에서 중심인물이 되고 자신의 삶에 주류의 규범과 가치가 파고 들어간다.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덕목,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는 삶에 굴복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엄마만큼은 믿을 만하니까. ○○엄마가 내 대신 다 책임지고... 한집에서 그렇게 오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드물잖아요? 직장생활

아니고 공무원 아닌 담에는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수는 없거든요.

(참여자 1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빈민이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를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유병덕, 2004; 진명숙, 2005; 홍인옥, 2005; 유현숙, 광현근, 2007; 박윤영, 2007)은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입주 15년 이후의 연구(남기철, 2010)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보고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초반에 제기한 세 가지 문제를 통해 도시빈민의 지역적 고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도시빈민들은 주거지 외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임대주택 내부의 주민들의 관계는 단순한 안면 인식을 벗어날 수 없는 다양한 공식, 비공식 조직에 가입하여 교류하고 있었고 일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던 임대주택 주민들의 외부 지역사회와 주류사회와의 관계도 내부관계보다는 약하지만 고립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었다. 14명의 참여자 중에 6명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직업을 통해 주류사회와 교통하고 있었고, 나머지 8명 중에 두 참여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일을 중단하였지만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2명은 질병으로 앞으로 직장을 다니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참여자는 모두 65세 이상으로 직업을 갖기에는 연령이나 건강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참여자 중에 네 명이 조직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지역이나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였고 나머지 세 명은 외부관계가 활발하지 않았다.

둘째, 빈민들은 주거지 밖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가?

참여자들의 외부관계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와 정기적으로 접촉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6인이었고 지역사회 외의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가 4인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4인은 혈연관계를 제외한 정기적인 접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부와 정기적인 접촉이 없다고 한 4명 중 2인은 질병이 있기 전까지 세탁소를 운영하거나 식당에 다니면서 외부와 교류를 하였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부정기적인 파트타임 일을 통해 현재에도 외부와 접촉을 하고 있다. 결국 1명의 참여자만이 두 가지의 범주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고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참여자가 지역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참여자는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데 아내는 16년 동안 한 식당에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의 자녀는 대학을 졸업하여 분가하여 살고 있다. 그는 외부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 또는 자녀들과의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외부세계와 소통하고 있었다.

셋째, 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고립되는가? 혹은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교류

하는가? 영구임대주택의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사회에서 풀어줌, □ 봉사로 되갚음, □ 인정받음, □ 같이 할 수 있음이라는 과정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주민들은 ‘인정받음’이라는 세 번째 단계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이나 ‘같이 할 수 있음’의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 차원의 협조와 노력이 더욱 부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도시빈민의 연구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먼저 70-80년대 보고되었던 건강하고 능동적인 달동네 도시빈민의상이 아파트라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흩어진 후 해체(이성호, 2007)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하셋방, 옥탑방, 그리고 쪽방으로 흩어진 도시빈민들의 결속과 연대는 힘들겠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단단한 이웃관계는 입주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복원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빈곤층들은 전통가옥에 거주하던 과거의 빈곤층에 비해 주류사회의 성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기에는 분명한 제한요인이 있지만 이들은 생존을 위해 질병이나 노령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기까지는 비록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끊임없이 노동에 종사하였다. 일자리의 유지는 이들이 주류성원과의 접촉 및 소통을 단절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생산 활동을 매개로 한 주류사회와의 접촉 외에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의 종교기관에 정기적인

출석,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리고 임대주택 내에 조직된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통하고 접촉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주민들이 입주 초기부터 조직된 다양한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행위와 태도를 변화하고 주류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스스로 주류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임대주택 주민들의 성과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40-50대에 입주한 그들이 이제 노인이 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며 빈곤한 상태에서 스스로 좌절하거나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빈민들의 삶은 역경을 딛고 능동적으로 살았던 과거 달동네의 서민들과 닮아 있다.

끝으로 미래에 우리 사회에서 주거에 따라 차별이나 낙인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임대주택의 거주자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고립되는 상황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정도나 임대주택의 공급방식 및 구성에 영향을 받는다.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있으며, 공급은 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비율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나라마다 다르다. 공공임대가 소수의 비율에 머물고 민간임대가 지배적인 이중임대시장을 가진 사회에서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서로 경쟁하지 못하므로 공공임대는 잔여화 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에 주거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

고 시장을 통해 공급되기 보다는 모든 개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며 생존권에 필수적인 개념으로 자리잡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공급주체가 참여하고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사회임대)가 비슷한 비율로 경쟁하여 후자가 더 이상 부정적인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도입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주거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삶을 조직하는 방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남기철 (2010). 영구임대단지과 사회적 배제. 복지동향, 5월호, pp.42-46.
- 남원석 (2007). 공공임대주택과 사회통합.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5월호, pp.37-49.
- 보건복지부, 한국도시연구소 (2003). 공공임대주택의 소요계층에 따른 공급전략과 관리운영방안
- 박운영 (2007). 경기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0(3), pp.99-129.
- 박운영 (2009).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전개와 사회복지계의 과제. 사회복지정책, 36(4) pp.215-240.
- 유병덕 (2004). 도시빈민의 사회문화적 특성: 청주시 S영구임대아파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9, pp.1-28.
- 유현숙, 곽현근 (2007). 여성 한부모 가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pp.245-272.
- 이성호 (2007). 신빈곤층 사회적 네트워크의

- 해체와 대응 전략-전주시 노동빈곤층을 중심으로-. 담론, 10(4), pp.239-273.
- 이은주 (2009).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도시빈민의 삶의 경험: 주민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36, pp.29-77.
- 이은주 (2010). 복지국가 주거정책의 두 가지 길: 단일임대모델과 이중임대모델에 대한 분석 사회보장연구, 26(2), pp.23-49.
- 진명숙 (2005). 주거빈민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전주시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3(3), pp.1-26.
- 최종혁, 이연 (2005).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조직화에 관한 요인-영구임대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대회자료집, pp.584-605.
- 홍인옥 (2005).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해결 및 사회통합 방안. 도시와 빈곤, 76, pp.32-60.
- Room, G. (Ed). (1995).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The Policy Press.
- Taylor, M. (1998) Combating the social exclusion on housing Estates. *Housing Studies*, 53(3).
- Wilson, William Julius (1990),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제출일 : 2012. 10. 1
심사완료일 : 2012. 11. 10

Are the Urban Poor Isolated from the Neighborhood?

-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Regional Relationship of Residents living in the Permanently Rented Housing in the Seoul Cit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plore the realities of isolation of the urban poor living in the publicly rented housing in Seoul, by apply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interviews with 14 residents, leaders of resident organizations, social workers, staff of the maintenance office, and observations of the housing and neighborhoods. After data analyses, the data showed that participants had kept in contact regularly with the neighborhood and the main society through two ways: 1) work for making a living, and participation in a variety of activities in the neighborhoods such as church attendance, volunteering, and resident organizations.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lso showed that for the residents to create and maintain the bond with neighbors in the community, four processes, including inclusion from the society, participation in activities, getting recognition, and being together, were needed to get through.

Key words : *the Urban Poor, Isolation, Permanently Rented Housing, Housing, Neighborhood Relationship,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투자심리 사이버교육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실증적 영향 연구

서 영 수 †

서울사이버대학교

최근 한국대학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이버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점차 대중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학습환경에서 본 연구는 e-learning을 통한 투자심리관련 교육에 어떤 요인들이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투자심리 학습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미래 유비쿼터스 투자세상에서도 투자심리에 관한 최적의 학습전략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s사이버대학교 투자심리교과목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습동기,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학습 콘텐츠는 학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사이버교육, 학습성과, 학업만족도, 투자심리, 투자심리교육

† 교신 저자 : 서영수,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3-15,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sys1326@iscu.ac.kr

I. 서론

1. 연구배경

최근 한국사회에 인터넷에 기반을 둔 사이버학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이버 학습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대학에서조차 e-learning을 통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영민, 2010). 한편, 온라인 금융투자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금융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사이트들도 매우 빠르게 양적·질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게시판과 동호회를 만들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류명석, 2001). 근래 이러한 형태가 꾸준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온라인 투자학습행태가 정착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에는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금융거래가 더욱 대중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온라인기반의 사이버투자학습 교육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다양한 연구도 적극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금의 투자환경은 투자자의 심리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드러난 사실만으로 어떤 투자행태를 예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투자자 개인이 원하는 목표수익을 창출하고 투자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투자와 심리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자신의 부와 관련된 투자의사결정이나 투자행동에서조차 잘못된 추론 오류를 범하며, 심지어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다(한미영·김재휘, 2007). 현재 국내의 투자심리 관련 교과목은 주로 경영대학원에서 사례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다 대중적이고 저변화된 교과목은 개설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원격대학에서는 투자심리 관련 교과목 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투자행태에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리현상을 정리한 다음, 이를 투자자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에도 인터넷을 통한 투자경험이나 투자기법의 상호공유 또는 학습방법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매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에도 유비쿼터스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로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집은 물론이고 차안이나 공원, 음식점 등 어디에서든 학습매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미래세대의 교육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여 이를 활용하는 체제로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교육의 핵심은 개인의 학습욕구를 적기에 만족시키는 적시학습과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교육이 우선시 될 것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e-learning을 통한 사이버교육에서만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누구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투자심리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시대흐름상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지금의 투자세상에는 막대한 양의 투자지식과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온다. 투자자들도 투자의사결정에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당연히 투자관련 교육도 실시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미래 투자세상에서는 사이버교육에 기초한 다양한 투자사례들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이버학습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경쟁우위 학업시스템인 e-learning기반의 투자심리학습이 과연 기존의 연구대로 학업성과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우선적으로 e-learning기반의 학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내생변수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요인들이 투자심리 학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투자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현상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추출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자기과신, 자기통제, 휴리스틱(heuristic), 프레임(framing) 효과, 보유효과, 닷내리기 효과, 시간선호, 대조효과, 문간에 발 들여 놓기, 동조효과 등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동기,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학습콘텐츠의 영향요인에 따른 학업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투자심리 사이버교육과 선행연구

1. 투자심리 사이버교육과정

본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소재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투자심리 관련 교과목을 인터넷기반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투자심리관련 교과목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상담심리와 재무관련 주제 하에 일

부분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그간의 사이버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우선 학생과 교수들 간의 토론식 강의구현으로 일반 오프대학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블렌디드 형태로 설계하였다. 두 번째, 재학생, 졸업생, 일반대중 등 포괄적인 수요자와 학교외에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투자심리 주제들을 다루어 교양과목으로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세 번째, 단순히 강의를 수강하는 차원을 벗어나 실제로 교수와 대면하고 토론하면서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무엇보다 수업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매 주차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와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항상 수업의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한편, 본 교과목을 설계하면서 기존의 다른 이러닝 과목과도 차별화를 시도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자심리관련 교육과정을 금융보험, 부동산, 상담심리라는 각각의 학문을 투자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에서 바라보고, 학문 간의 융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지식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학습모델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이란 점이다. 학문 간의 융합은 고등교육기관이 사회와 동떨어진 지식인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시도된 것이다. 세 번째, 사례위주의 교육과정이다. 대부분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투자관련 교과는 이론위주의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주로 교육환경의 문제 또는 교수자 능력의 제한

적 문제 등으로 볼 수 있다.

주차별 학습주제는 우선적으로 심리분야의 핵심주제를 선정한 다음 그에 상응한 심리이론과 관련 투자사례를 취합하는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학습자가 매 주차 말미에 학습된 내용을 중심으로 셀프심리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수준은 주차별 강의진행 순서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학기 초에 투자심리학 입문을 소개하여 수업운영의 질을 높이고 전/후반기 말에 투자자의 행태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학습역량을 느끼게 한다. 더불어 다양한 심리 상황에 기초한 금융과 부동산 투자사례를 제시하여 수강생들이 실제로 본인의 상황처럼 느끼게 한다. 또한 학습말미에 심리테스트를 추가하여 더욱 구체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심리, 금융, 부동산 영역별 교수자들의 좌담과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시에 제공함으로써 실시간 학습효과를 높인다. 아래 <표 1>은 주차별 학습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주차별 학습주제

주차	학습주제
1	투자심리학 소개
2	자기과신
3	자기통제오류
4	휴리스틱 판단
5	프레이밍 효과
6	보유효과
7	맞내리기 효과
9	시간선호 현상
10	대조효과
11	문간에 발 들여 놓기
12	손실회피
13	자기통제오류
14	동조현상

2. 선행연구

e-learning기반의 투자심리교육과 관련한 학습성과 또는 학업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인터넷 조사결과 거의 전무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는 부득불 일반적인 e-learning이나 교육공학분야를 중심으로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학습성과 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e-learning 학습효과 요인으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만족도, 학습지속의향 등 다양한 지표가 측정되고 있었는데 이 중 만족도가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사이버환경에서는 무엇보다 학습자 스스로 공부해야 하므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지고, 학습목표의 달성이라는 교육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만족도의 준거는 과정전반에 대한 만족도, 향후 수강의도, 추천의향 등이다. 김미량(2005)은 학습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프로그램의 안정성, 편의성, 멀티미디어 품질, 조작성의 4가지 선행요인과 상호작용을 설정하고, 물입을 매개로 하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편의성과 멀티미디어 품질, 학생-콘텐츠 내용간의 상호작용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Ellis(2008)는 만족도를 교수에 대한 만족감, 소속에 대한 만족감, 기술에 대한 만족감, 지원에 대한 만족감, 전반적 만족감으로 세분하여 각 만족감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김은주(2003)는 e-learning기반에서 의사소통 불안수준이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에 끼치는 요인으로 만족도, 학업성취도, 인터넷 및 정보통신사용

능력향상, 수업활동의 참여 및 몰입, 상호작용 등을 제시하였다.

e-learning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김희정(2011)은 오프라인처럼 사이버에서도 학습자의 특성이 학습효과에 매우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간주하고 학습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 경험 및 능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 가지 요인 모두 학습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 중 자기조절학습능력은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처럼 학습효과와 학업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학습자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e-learning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한편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선천적이기보다는 훈련으로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e-learning 환경에서 학습자들에게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판단컨대 실제 투자 환경에서도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이런 사실을 모든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e-learning을 통한 학습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정화(2010)는 학습환경의 구성요소로 학습가이드 제공, 학습편리성, 학습내용의 제시 방식 및 명확한 피드백의 4가지로 구분하여 독립변인인 e-learning 학습환경 요인과 학습자 성향, 매개변인인 최적몰입경험, 종속변인인 학업만족도 및 학업효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학습환경과 학습자 특성은 최적몰입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이는 결국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심(2009)은 기업의 e-learning에서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교수실재감과 학습실재감이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는데, 연구가설과는 달리 교수실재감은 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수실재감이 학습지속의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인에서 교수자의 강의특성이 사이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김나영(2009)은 사이버교육의 학습성과에 관련된 요인으로 학습동기, 프로그램, 조직의 지원, 상호작용, 몰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동기요인과 프로그램요인은 학습자의 만족도와 성취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끼쳤음을 확인하였는데, 프로그램요인이 학습동기요인보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취도에는 학습동기요인과 몰입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김영민(2009)은 e-learning물류교육에서 물류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변수로 학습내용, 학습동기 및 상호작용이, 유의치 않는 변수로 학습콘텐츠, 학습평가항목 및 학습자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동주(2007)는 e-learning에서 학습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수학습설계 영역(학습내용, 학습방법 및 학습평가), 교수자 영역(즉각적인 피드백 및 학습활동 촉진), 교수학습환경 영역(시스템의 편리성, 상호작용 및 학습을 위한 다양한 기능 제고)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적절한 학습량, 학습내용의 난이도,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은 만족도에 유의하였지만, 접속빈도와 접속시간, 과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학업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이버 토

론, 탐구과제 등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참여 활동을 늘려 학습자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철·서인석(2006)은 e-learning기반의 경영학교육에서 학습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내용(내용의 체계성과 현장관련성), 콘텐츠구성(흥미 유발성과 탐색 용이성), 상호작용(교수자, 조교, 학습자) 및 학습행태(학습장소, 학습시기, 학습량)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습내용과 콘텐츠구성은 유의하였지만, 상호작용은 부분적으로, 학습행태는 유의하지 못했다고 제시하였다.

정경수·김경준(2006)도 기업의 e-learning에서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세 가지 영역, 즉 학습자특성(동기, 능력, 기대,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용성), 조직의 지원환경(조직의 지원,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시스템 환경(내용의 적절성, 화면설계, 시스템 품질, 매체 풍부성)으로 망라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 특성에서는 동기와 유용성이, 지원환경에서는 상사 및 동료의 지원이, 시스템 환경에서는 내용의 적절성이 채택되었다.

지금까지의 e-learning에서 학습성과 영향 요인과 성과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음 <표 2>와 <표 3>에 요약 정리하였다.

〈표 2〉 학습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학습성과 영향 요인
김희정(2011)	학습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 경험, 능력
강정화(2010)	학습환경(학습가이드 제공, 학습편리성, 학습내용 제시방식, 피드백), 학습자성향, 최적몰입경험
김지심(2009)	교수실재감, 학습실재감
김나영(2009)	학습동기, 프로그램, 조직의 지원, 상호작용, 몰입
김영민(2009)	학습내용, 학습동기, 상호작용, 학습콘텐츠, 학습평가항목, 학습자특성
이동주(2007)	교수학습설계 영역(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평가), 교수자 영역(즉각적인 피드백, 학습활동 촉진), 교수학습환경 영역(시스템의 편리성, 상호작용, 학습을 위한 다양한 기능 제공)
박철·서인석(2006)	학습내용(내용의 체계성과 현장관련성), 콘텐츠구성(흥미유발성과 탐색 용이성), 상호작용(교수자, 조교, 학습자), 학습행태(학습장소, 학습시기, 학습량)
정경수·김경준(2006)	학습자특성(동기, 능력, 기대,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용성), 조직의 지원환경(조직의 지원,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시스템 환경(내용의 적절성, 화면설계, 시스템 품질, 매체 풍부성)

〈표 3〉 학습성과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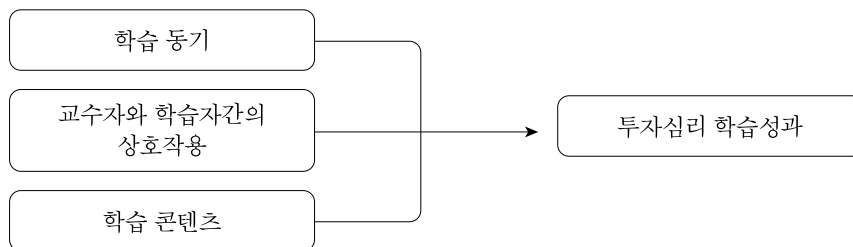
연구자	학습성과 요인
김희정(2011)	학업만족도
김나영(2009)	학습만족도, 성취도
김영민(2009)	학습만족도
Ellis(2008)	교수에 대한 만족감, 소속에 대한 만족감, 기술에 대한 만족감, 지원에 대한 만족감, 전반적 만족감
박철·서인석(2006)	교육만족도
정경수·김경준(2006)	학습만족도, 재수강 의향
김미량(2005)	프로그램의 안정성, 편의성, 멀티미디어 품질, 조작성
김은주(2003)	만족도, 학업성취도, 인터넷 및 정보통신사용 능력향상, 수업활동의 참여 및 몰입, 상호작용

III. 연구방법론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e-learning기반의 투자심리 사이버학습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내생변수를 근거로 하되 연구대상인 사이버대학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학습동기,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학습콘텐츠를 선정하였으며, 학습성과인 종속변수로는 학업만족도를 선정하였다. 한편, 기존의 이론적 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학습성과 영향요인과 학업만족도 간의 상호관계를 e-learning 투자심리교육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의 설정

위의 연구모형에 의거 그에 따른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학습동기

선행 연구를 통하여 e-learning에서 학습동기는 학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김나영, 2009; 김영민, 2009; 김희정, 2011; 정경수·김경준, 2006). 일반적으로 학습동기는 수강생들에게 학습에 참여하는 명분과 목적의식을 원천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요인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는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첫 번째로 설정하였다.

가설 1 : 학습동기는 학업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선행 연구를 통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은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김나영, 2009; 김영민, 2009; 박철·서인석, 2006; 이동주, 2007). 사이버학습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통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상호작용이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상호작용은 학업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학습콘텐츠

일반적으로 사이버교육은 속성상 학습자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는 콘텐츠구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시스템에 기초한 다양한 매체의 풍부성과 탐색의 용이성 또한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학습콘텐츠 구성요인은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철·서인석, 2006; 정경수·김경준,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습콘텐츠

〈표 4〉 변수의 측정지표

요인	변수	하위요인
학습성과 영향요인	학습동기	학습목적(지식함양, 투자습관 개선 등), 학습참여 의지, 능동적인 자기주도학습, 학습시간의 최대 활용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교수자의 흥미 유발(사례제시, 애니메이션 등), 교수자의 격려(SMS, 이메일 등), 교수자의 학습자의 사례토론, 교수자의 피드백
	학습콘텐츠	학습콘텐츠의 흥미유발, 다양한 매체활용, 다양한 학습동기 유발, 다양한 상호작용 매체 제공
학습성과 요인	학업만족도	투자심리학습의 만족, 투자심리 전반에 대한 이해, 투자심리의 중요성, 투자심리에 관한 흥미와 관심

츠가 학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학습콘텐츠는 학업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e-learning기반의 투자심리 학습이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근거한 일반적인 e-learning과 관련된 학습성과 영향요인과 학습성과 요인을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 적용하되 S사이버대학교 투자심리관련 사이버 학습특성에 적합하도록 측정지표를 선별하여 적용하였다.

IV. 실증분석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e-learning통한 투자심리 사이버교육이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에 적합한 수집대상으로

S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투자심리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우선 구두로 하는 사전검토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으며, 설문은 수업종료시점인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하였다. 설문지는 교수자와 학습자간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간 의사소통 수단인 내부 인트라넷, 이메일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전체 수강학생 110명에 배포하여 그 중 84부가 회수되어 76.4%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지 8부를 제외한 76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측정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테스트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e-learning 투자심리교육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학업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결과

1) 인구통계학적 분석

〈표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성 별	남자 40명(52.6%), 여자 36명(47.4%)
연 령	30세 이하 6명(7.9%), 31~40세 22명(28.9%), 41~50세 25명(32.9%), 51~60세 19명(25%), 60세 이상 4명(5.3%)
직 업	학생 1명(1.3%), 사무직 20명(26.3%), 금융/보험/증권직 8명(10.5%), 주부 13명(17.1%), 자영업 15명(19.7%), 판매서비스직 5명(6.6%), 무직 1명(1.3%), 기타 11명(14.5%)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40명(52.6%), 여자 36명(47.4%)으로 남자가 소폭 많았으며, 연령은 30세 이하 6명(7.9%), 31~40세 22명(28.9%), 41~50세 25명(32.9%), 51~60세 19명(25%), 60세 이상 4명(5.3%)으로 31세 이상이 90% 이상 차지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투자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는 세대가 대체로 결혼이후 30세 이상이므로 표본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직업은 학생 1명(1.3%), 사무직 20명(26.3%), 금융/보험/증권종사자 8명(10.5%), 주부 13명(17.1%), 자영업 15명(19.7%), 판매서비스직 5명(6.6%), 무직 1명(1.3%), 기타 11명(14.5%)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대상이 선정되어 표본의 다양성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2)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①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 적 재치(factor loading)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 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요인 적 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고유값(eigen value)은 특정 요인에 적재된 모든 변수의 적재량을 제공하여 합한 값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

〈표 6〉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성분			Cronbach's alpha
	학습동기	상호작용	학습콘텐츠	
학습참여의지	0.775	.055	.066	0.823
능동적인 자기주도학습	0.814	.237	.043	
학습시간의 최대활용	0.796	.229	.279	
교수자의 흥미유발	0.271	.764	.258	0.849
교수자의 격려	0.295	.794	.217	
교수자와 학습자의 사례토론	0.077	.752	.314	
교수자의 피드백	-0.132	.533	.437	0.868
학습콘텐츠의 흥미유발	0.088	.124	.796	
다양한 매체 활용	0.014	.255	.860	
다양한 학습동기 유발	0.173	.261	.744	
다양한 상호작용매체 제공	0.226	.252	.730	
고유값	6.752	1.845	1.527	
누적분산비율	45.014	57.315	67.497	

값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 를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0 이상, 요인 적재치가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학습동기, 상호작용과 학습콘텐츠, 3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학습동기에서 1개 설문항목(나의 학습동기는 분명하였다), 상호작용에서 1개 설문항목(교수자의 강의열정을 충분히 느꼈다)을 제거하였다.

한편, 측정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alpha 분석을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alpha 계수값이 0.7을 넘으면 상당히 양호하고, 0.6 이상이면 무난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모두 0.8 이상이어서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종속변수인 학습성과의 요인분석 결과, 학업만족도라는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그 중 1개 설문항목(다양한 투자심리사례가 나의

상황처럼 친밀하게 느껴졌다)을 제거하였다. 신뢰성분석 결과 alpha계수가 0.808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e-learning기반의 투자심리학습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학습성과 영향요인, 즉 학습동기, 상호작용, 학습콘텐츠를 독립변수로 하고, 학업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 R은 82.8%로 상당히 높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68.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은 학습동기가 학업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은 .043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동기가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1은 지지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즉 김희정(2011), 김나영(2009), 김영민(2009), 정경수·김경준(2006)의 학습동기가 학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표 7〉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학업만족도	Cronbach's alpha
투자심리 학습의 만족	0.833	0.808
투자심리 전반에 대한 이해	0.862	
투자심리의 중요성	0.794	
투자심리에 관한 흥미와 관심	0.791	
고유값	2.693	
누적분산비율	67.333	

〈표 8〉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p-value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899	.274		3.281	.002
학습동기	.122	.059	.167	2.060	.043
상호작용	.408	.086	.459	4.762	.000
학습콘텐츠	.216	.075	.266	2.891	.005
R	0.828				
R2	0.685				
Adjusted R2	0.667				
F	38.621				

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투자심리교육에서도 일반적인 e-learning교육처럼 학습동기가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분명한 학습동기나 학습목표를 갖고 있는 수강생일수록 학업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설 2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학업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는 상호작용이 학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 즉 김영민(2009), 이동주(2007), 박철·서인석(2006)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교육에서 상호작용은 일반대학의 대면교육에서 나타나는 생동감과 현장감을 사이버공간에서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학습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설 3은 학습콘텐츠가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분석결과 유의확률은 .0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3 역시 지지되었다. 그러나 김영민(2009)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박철·서인석(2006), 정경수·김경준(2006)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다양한 학습자가 학습콘텐츠의 구성요인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가 수시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e-learning에서 학습콘텐츠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적시에 업그레이드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e-learning을 통한 투자심리 교육에서 어떤 요인들이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투자심리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순차적으로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및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동기, 교수자와 학습자간

의 상호작용과 학습콘텐츠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학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학업동기의 중요성이다. 기존 연구에서처럼 e-learning에서 학위취득이나 실무지식 취득, 그리고 자격증 취득 등 분명한 학습목표와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학업만족도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학습전략도 마련되어야만 기대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다. 오프라인교육과 달리 사이버교육의 제약요인은 교수자와 학생자간의 비대면 교육에 있다고 빈번히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습자의 학습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매체가 수업시간에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콘텐츠의 다양성과 접근성이다. 사이버수업에서 학습콘텐츠는 다양한 수강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시스템의 용량에 한계가 있지만 이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강의 평가를 통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적시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교육의 핵심은 적시학습 교육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행태는 무엇보다 e-learning을 통한 경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상에서 전 세계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막대한 양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심리관련 사이버교육도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학습자들

의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후 시대적인 욕구에 충족되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이버상이지만 행동경제학적 투자자의 심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e-learning기반의 투자심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교육공학에 기초한 요인을 재조작하여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투자심리 수강생들의 특징을 간과할 우려도 있으며 이로 인해 결과의 충분성을 확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위한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 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정화 (2010).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최적몰입경험과 학업만족도 및 학습효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9). *사이버교육에서 학습동기, 프로그램, 조직의 지원과 상호작용, 몰입 및 학업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이화여대 대학원 교육공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미량 (2005). *이러닝 대학원 과정에서의 학습자 몰입 및 강의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 32(1), 165-201.
- 김영민 (2010). *이러닝에서 몰류사례 중심학습이 몰류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제 e-비즈니스학회, 11(1), 433-453.
- 김영민 (2009). *이러닝 몰류교육에서 몰류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경영학회, 12(2), 119-138.

- 김은주 (2003). 협동학습에서 의사소통 불안수준이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17(2), 215-231.
- 김지심 (2009). 기업 이러닝에서 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구조적 관계 규명, 이화여대 대학원 교육공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희정 (2011). *대학 e-러닝 학업만족도와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류명석 (2001). 한국인의 주식투자행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철, 서인석 (2006). 기업의 경영학교육에서 이러닝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GBS학습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학회*, 10(1), 215-232.
- 이동주 (2007). 이러닝 강좌에서 학습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 평생대학원을 중심으로-, *논문집*, 42, 한국방송통신대, 643-663.
- 정경수, 김경준 (2006). 기업의 e-learning에 대한 학습효과 및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5(2), 1-29.
- 한미영, 김재휘 (2007). 개인투자자의 자기고양적 지각과 투자확신이 위험투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13(3), 89-109.
- Eliis, K. A. (2008). *Satisfaction of graduate students with their distance learning experiences*, Doctoral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Learning Performance in Investment Sentiment Cyber Education

A variety of Internet-based on-line education has recently spread around universities in Korea and becomes increasingly popular socially. This study is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learning strategies in investment sentiment an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optimized learning strategies by analyzing the impact on learning satisfaction in investment sentiment related education through e-learning.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expected the tools of optimized learning strategies on investment sentiment in future ubiquitous investment environment.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Internet survey of Seoul Cyber University students of investment sentiment course. For the data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ree factors, 'motivation of learning', 'interaction of lecturer and learner' and 'contents of learning',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earning satisfaction.

Keywords : *Cyber Education, Learning Performance, Learning Satisfaction, Investment Sentiment, Investment Sentiment Education*

